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8월 15일 (토) 제 1789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성도는 한 몸...스크린상 얼굴로 만날 수 없다!

Crossway, 데이빗 건더슨 목사의 COVID-19후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10가지 이유 제시

지난 몇 개월 동안 대부분 교회는 대면 모임을 중단했다. 세계적인 팬데믹, 정부의 규제, 그리고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예배'했고, '가상공간'에서 만났으며, 각종 장비를 동원해 서로 교제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가?

새롭게 재개된 예배에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민감성은 고조됐고, 의견 차이는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어색하고 불편한 의례들과 좌절감을 주는 제약들을 견뎌야 한다.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하더라도, 일부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편리했지만, 반면 재

개된 우리의 모임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제한적이며, 더 나아가 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 취약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면, 도대체 왜 우리는 대면 만남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타당한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기 전에, 모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커지도록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따라서 데이빗 건더슨(David A. Gundersen,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브릿지포인트바이블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레지던트 디렉터, 부학장, 그리고 교수직을 역임하며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다) 목사는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10 Reasons to Come Back to Church After COVID-19").

1.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고, 하와도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빚으셨으며, 그 둘의 연합으로 인류를 만드셨다(창 1:26-27; 2:18-25; 3:20).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혼들이다. 우리는 가상공간에 떠다니는 영묘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저 화소나 컴퓨터상의 스크린 이름, 줌(Zoom)이나 페이스타임(Facetime)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세계를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도록 설계됐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온라인 세계의 힘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것의 한계 또한 동시에 느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그 어떤 부부도, 결코 "장거리 관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가족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2. 교회는 한 몸이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엡1:22-23). 각 성도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엡4:15-16). 우리는 독립적이 존재들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이다. 우리의 영적 은사들은 몸의 성장과 사명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눈과 귀와 손과 발과 같은

재 위적인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누어질 수 없으므로 성도들이 부지불식간에 분리되면 우리는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마치 고무줄을 과도하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말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고무줄이 다시 원상 복구되듯 우리가 함께하기를 갈망하실 것이다.

4.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아버지이시므로 사실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형제자매라고 볼 수 있다(딤후 3:15). 우리의 나이와 성별이 서로 다르지만, 바울은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매와 형제,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다(딤후 5:1-2). 그런데 가족의 속성은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가정은 함께 살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고, 더 나아가 서로를 돕는다. (3면으로 계속)

3.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성도들은 단순히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있다(엡 4:4).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



TicTok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BBC, '귀여운 젤리 곰' ...지구촌 안보위협 급부상 이유 소개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 빨간색 젤리 곰 한 마리가 서 있다.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가수 아델의 목소리다. 잠시 후 무대 뒤편에 줄지어 선 이들이 형체를 드러내더니, 이내 수백 마리의 젤리 곰이 아델의 노래 "Someone Like You"를 합창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황당하면서도 너무나 귀여워 시선을 떼기 어려운 영상이다. 신생 비디오 앱 틱톡은 이 영상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들인 마케팅보다 많은 것을 15초 만에 이뤄냈다.

이 영상은 2018년 12월 틱톡에 올라와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그러자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이를 모방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후 전 세계가 틱톡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세대가 밀물처럼 이 앱으로 몰려들었다(TikTok: The story of a social media giant).

틱톡의 창업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동화와는 다르다.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 어머니 차고에 모여 만들어낸 제국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틱톡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앱이 어우러졌다. 2014년 에 출시된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낸 '뮤지컬리(Musical.ly)'라는 미국 앱이 그중 하나다. 2016년에는 중국의 IT기업 바이트댄스

가 중국에서 도우인(Douyin)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1년 만에 중국과 태국에서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다. 이 앱으로 가능성을 발견한 바이트댄스는 틱톡이라는 다른 브랜드로 서비스를 확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뮤지컬리를 인수해 틱톡의 글로벌 확장에 나섰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조용철 목사



팬데믹 시대의 VBS... 주일학교 스태프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 상급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지우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2001.usg.com | cjb2019@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2020년 가을학기 입학안내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신교학 석사	2년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부설 평생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 2매
- 6 입학 전영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접수마감 : 2020년 9월 4일(금) 오후6시
- 2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퀵스타로교회 내 2층)
- 3 입학시험 : 2020년 9월 5일(토) 오전11시
- 4 개강부흥회 : 2020년 9월 8일(화)~9월 10일(목)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718-463-7163
학감 허준준 목사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빛은 아프다



김성국 목사
(켄즈장로교회 담임)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는 집 안에 있어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밖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쓰러진 나무들, 끊어진 전선들, 무너진 집들... 얼마 전 뉴욕에 짧게 불었던 폭풍(storm)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필자의 집도 불이 나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불이 나간 교우들의 집이 꽤 있었다. 불이 나가지 불편한 일이 한 둘이 아니었다. 몇 날 계속되면서 불편을 넘어 고통이 되었다. 곳곳에 넘어진 나무 때문에 거리에서의 혼돈도 적잖이 있었다. 닷새 만에 다시 집에 불이 들어왔다. 무엇보다 하얏겠는가. 어질러진 집안을 청소하고 병상고 안의 상한 음식을 정리하였다. 무질서의 집안을 인정하고, 상한 식물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아픔이 빛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었다. 어둠이 빛을 처음 만날 때는 아픈 이유는 그동안 빛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어둠은 빛을 만나면서 아프다고 그 빛을 피하여 더 짙은 어둠으로 내려갈 수 있다. 슬픈 일이다.

영화 "초원의 빛"은 버드와 윌마의 아픈 사랑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영화 제목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화 내용은 왜 아플까? 모든 빛이 그렇듯이 사랑의 빛도 처음에는 언제나 아픔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초원의 빛"은 이렇게 쓰여 있다. "한때는 그리도 찬란한 빛이었건만/이제는 속절없이 사라진/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오하려 강한 힘으로 살아남으리/존재의 영원함을/티 없는 가슴으로 믿으리/삶의 고통을 사색으로 어루만지고/죽음마저 꿩눈/명철한 믿음이라는 세월의 선물로" 놀란다. 슬픔을 가지고 온 초원의 빛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삶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죽음까지 꿩눈 빛이 되는 것을 본다. 빛은 처음에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에 응크리지 않고 그 아픔을 딛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여리고 성의 바디매오를 보라.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인생은 버려진 존재와 같았다.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빛을 만나는 장면이 맨 처음에는 매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방해가 있었다. 엽신여김이 있었다. 바디매오가 얼마나 서러웠고 아팠겠는가. 바디매오는 그 방해, 그 설움, 그 아픔을 떨치고 나아가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눈을 뜨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익숙했던 어둠의 삶을 던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빛은 이처럼 처절한 아픔을 넘어 찬란한 치유를 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빛을 처음 만나는 어둠만큼 아픈 것이 아니다. 빛 자체도 아프다. 빛을 밝히기 위해 타야하는 아픔이 빛 자체에 게 있다. 촛불도 호불도 빛을 밝히기 위해 심지가 타야하는 아픔이 있다.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아픔 없이 또는 희생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빛은 아래저래 아픈 것이다. 빛의 아픔을 빛도 잘 견뎌야 하고 어둠도 잘 감당해야 한다. 빛이 없는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다. 빛의 아픔은 세상의 고통을 물리치고 치유의 세계로 이끈다. 어디선가 들려오지 않는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곧 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트럼프에 맞서 "복고냐 급진이나?"

The Economist, '2020대선 조 바이든 후보 선전이유/정치인생 분석 보도(1)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집중 조명했다. "복고냐 급진이나?"는 헤드라인과 함께 마스크를 쓴 바이든의 얼굴사진 표지, 그리고 "바이든의 본능적인 신중함이 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달았다(Why Joe Biden's instinctive caution makes real change possible: How a retro can be radical).

코로나 팬데믹과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진 경제마비상태, 이런 돌발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경제호황 국면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미국 정치사를 봐도 경제호황 속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선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 경찰의 폭력적 행위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촉발된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시위, 코로나19 확진자 500만 명에 사망자 16만 명을 넘긴 통제 불능상황 등의 온갖 악재 속에서 어쩌면 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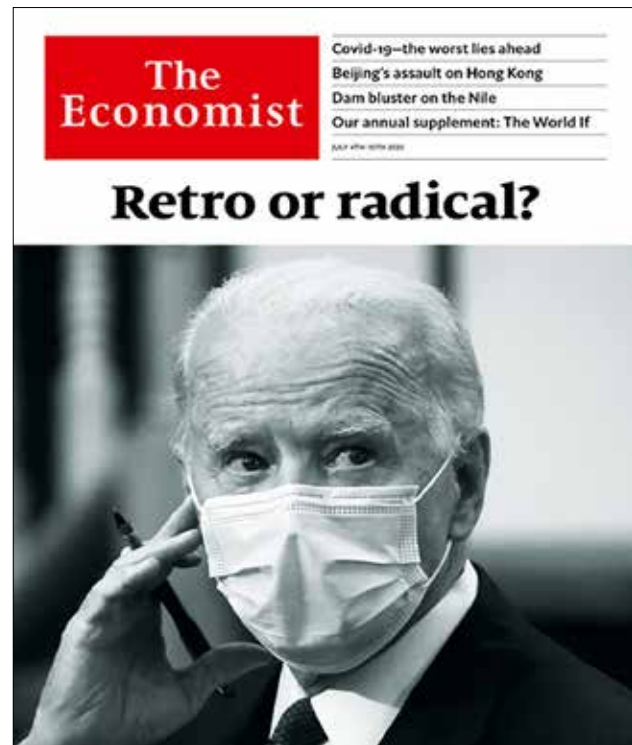
든은 "트럼프처럼만 하지 않으면" 되는 쉬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바이든이 이런 상황을 디자인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환경변화가 그를 문득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은 감이 있다. 트럼프의 기행에 지친 사람들은 바이든이 미국과 이 세상을 트럼프 정권 이전으로 되돌려 놓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고냐 급진이나?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생'이 단순한 복고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급진도 아니다. 온건중도파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은 견지하되, 민주당이 래디컬(급진)해진 만큼 바이든도 왼쪽으로 좌표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심각한 상황 자체가 단순한 복고, 과거로의 회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호까지 2회에 걸쳐서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연재한다[편집자 주].

각종 여론조사 수치들을 근거로 바이든의 우세를 확인하면서 그의 승리를 점치는 매체는 수도룩하다. 이코노미스트만 그런 게 아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자랑하는 통계학적 선거분석 프로그램인 '이코노미스트 선거예측 모델'에 따르면 11월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이길 확률은 11% 정도다. 그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초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바이든에 6%포인트 뒤졌을 때만 해도 트럼프의 승률은 20% 정도였다. 7월에 들어서자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9%포인트 이상으로 더 벌어졌다.



**65세 이상과 백인 바이든 지지율 힐리리보다 6-7%포인트 더 높아
트럼프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부진, 부동산 다수 민주당 성향 등**

이코노미스트 선거예측 모델은 여론조사(지지율 조사)만으로 산정된 않는다. 경제적 펀데멘털,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등의 요소들도 산출 자료에 포함된다. 지난 6월 초 6%포인트 차이였을 때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대로 트럼프가 전체 득표수에 선 뒤진다 하더라도 선거인

단 확보에서는 2016년 대선 때처럼 이길 방도가 아주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선마저 넘어버린 것 같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인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바람에 조 바이든이 당신네들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말이라는 호소겠지만, 재선의 길이 매우 험난하다는 걸 그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다.

트럼프가 고전하는 이유를 '이코노미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그의 장기인 흡연과 공세로 상대방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략이 잘 통하

지 않는다는 거다.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막판에 떨어져 작업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영국의 인터넷 시장조사 및 데이터분석 업체인 YouGov에 따르면 2016년 선거 직전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39%, 반대는 60%였다.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은 지지 41%, 반대 57%.

그런데 지난 6월 21-23일 실시한 YouGov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지 42%, 반대 53%인데 비해 바이든은 지지 43%, 반대 47%였다. 트럼프 반대가 바이든 반대보다 6%포인트 더 높았다. 2016년 트럼프와 클린턴의

비토(veto) 그룹 차이가 3% 포인트였던 데 비해 두 배쯤 높아졌다. '트럼프는 안 돼!'가 훨씬 더 많아진 현상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처능력, 나아가 대통령직 수행능력에 대한 실망 탓이 가장 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4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경/성화/역사/교회/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저이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담임목사 청빙광고
해외한인장로회 은혜의 빛 장로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담임목사 자격
1) 학력: 장로회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또는 총회(KPCA)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2) 경력: 목사 안수 후 부목사, 담임목사, 선교사 경력 등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되신 분
3)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단 가입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4)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과 설교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
5) 합법적 미국 체류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2.추천 서류
1) 담임목사 청빙 추천서 1부 2) 추천서 작성하시는 분의 소속증명서
3) 추천자의 추천서는 2020년 10월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1부(우체국 소인 기준) 그리고 이메일 lgkpcsearchpastor@gmail.com 로 1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Light of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Search Committee 68 Morello Ave. Martinez, CA 94553
4) 추천서는 본인인 아는 대로 솔직히 기록해 주시며 내용에 대하여 피추천자와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5) 추천서 접수 후 추천 받는 분이 공지된 피추천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시야 정식 청빙과정을 진행 합니다.

3.청빙위원장은 피추천자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청빙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4.피추천자가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외합니다(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의사 확인)

5.피추천자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본인/배우자 각 1부
3) 목회 세부 계획서 1부
4)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5) 목사안수 증명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6) 최근 설교동영상 3회분

6.제출방법
1) 모든 서류는 2020년 11월30일까지 등기우편(우체국 소인기준) 또는 이메일: lgkpcsearchpastor@gmail.com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Light of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Search Committee 68 Morello Ave. Martinez, CA 94553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가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은 청빙위원장/정규별 장로 510-910-3535 또는 총무/유경민 집사 925-822-75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빛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은혜의 빛 장로교회**
Light of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성도는 한 몸...스크린상 얼굴로 만날 수 없다

〈1면에서 계속〉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행복을 느낀다. 이처럼 가족은 모두가 모여야 완전한 만족을 느끼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함께할 수 없지만, 신실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손을 뻗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가족모임을 위해 모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5. 설교시간은 거룩한 순간이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존 파이프(John Piper)의 설교, 베스 무어(Beth Moore)의 비디오, 그리고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의 짤막한 영상에 익숙한 세대다. 휴대전화 스크린과 앱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본 매체다. 불과 석 달 만에 우리는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이 와이파이와 스크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우리는 설교가 근본적으로 현장에서(라이브로) 이뤄지는 거룩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행20:20, 27). 물론 설교를 생중계하고 녹화한 후 온라인상에 올려 가상공간에서의 참석자들과 훗날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에 가족으로 모아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임무를 맡은 설교자나 신뢰를 받고 있는 목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권능으로 임재 하셔서 목적과 가능성이 가장 충만한 순간에 개인적으로 또렷하게 현장에서(라이브로) 전파되는 것이 가장 좋다. 바로 이런 순간에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돌보게 되는 것이고, 양들은 목자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잘나에 연습하는 중령감에 압도되는 것이다.

이처럼 회중에서 하나님의 말

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장엄한 말씀과 공명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명한다. 함께 즐기는 연회가 혼자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6. 함께 찬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경험은 지구상에 또 없을 것이다(시95:1-2). 함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 보좌에 다시금 그분을 앉게 해드림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새기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을 은혜로 달구는 일이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복

서의 회중찬양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하교회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가능한 한 가장 신실하고 안전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드리거나, 소독을 통해 공기를 깨끗하게 하거나, 야외에서 만나거나, 속삭이며 말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고조되는 찬양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 소리를 높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7.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 필요하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당신의 교회가 지금까지 성례전을 “가상적으로” 실천했던지 안 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로운 상징들을

은 꼭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영적 은사를 갖고 있으며, 모든 몸 된 교회는 모든 신체 부분의 활동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롬12:4-8; 엡4:15-16; 벧전4:10-11).

집에서도 여전히 가상공간을 통해 귀 기울이거나 무엇을 주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섬기거나 격려하는 등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일들 중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9. 우리의 예배 자체가 증언이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의 친구나 동료 그리고 이웃들은 매주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나 목적과 같은 것들이 없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매주 도전과 비극에 몸서리치며, 은혜와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궁급해 한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들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가장 은혜롭고 적나라하게 목격될 수 있다.

10. 안부를 나누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기에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안부를 나누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단순한 행위가 지금은 과도하게 제한되고 복잡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앙성경 곳곳에서 저자들은 교회를 향해 문안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문안인사를 할 것을 권유한다. 이런 인사말들은 단순히 편지 끝에 고정적으로 붙이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인사말들은 복음이 갖고 있는 화해의 능력을 상징하고 공동체의 역동성을 도모한다.

목적하고 맛보아야 한다.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감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 두 가지 예식에서, 우리는 복음을 맛보고 만지고 보고 듣게 된다. 그것이 세례장에 입수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든지, 아니면 찢겨진 떡과 떼개진 포도를 통해 그분의 희생에 대한 기억을 곱씹게 해주는 것이든지 말이다(마 28:19; 고전11:26). 당분간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 방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은 그것들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8.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

당신이 성도라면, 교회로 모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목회 활동

〈9면으로 계속〉

시론

거꾸로 읽는 코로나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20년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역과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으며 이 고통의 중심에는 확연하게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한 국가 내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사이에 극과 극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까지 나온 뉴욕 주의 누적통계를 보면 확진자가 35만2천여 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2만2천여 명입니다. 이런 뉴욕주의 통계를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또 다른 면이 보입니다. 뉴욕시 보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뉴욕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의 사망률에 비해 무려 15배 높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지역별 zip code(주소 코드)로 분류한 결과 나타난 자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브루클린 인근의 스타렛 시티(Starrett City) 지역으로 주민 10만 명당 444명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은 흑인 40% 이상, 히스패닉계 25%에 해당됩니다. 반면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뉴욕 맨해튼의 부유한 백인 거주지역인 그램머시 파크(Gramercy Park)로 주민 10만 명당 31명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지역은 10만 명당 31명, 한 지역은 이보다 무려 15배 더 높은 4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대하면서 다양하게 설명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 중의 하나는 경제력이 코로나로부터의 생존율에 확실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와 관련된 통계자료 중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내용은 감염된 환자들의 연령대별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입니다. 감염된 환자들 중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0.1%로 환자 10만 명당 1136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원한 환자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의미 있는 수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321명으로 0.32%인데 반해 50세-64세 분들의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71명으로 0.17%입니다. 연령차가 10년 정도이지만 병원 입원율은 무려 두 배나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당연히 치사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격하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명확히 코로나와 경제력 그리고 연령에 따른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코로나는 '돈 없고 늙은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병'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일 통계가 그 반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돈 많고 젊고 어린 사람들이 더 희생되는 경우가 되었다면 아마도 미국 땅은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는 혼돈과 슬픔의 눈물로 채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그 생명의 가치는 같다고 배우고 가르치며 어린 생명이나 연로한 사람의 생명이나 생명은 다 같은 것이라고 늘 듣고 배우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 진리가 곧이곧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주시었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구부러진 코로나시대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몸소 세워주시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리를 진실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남아있기를 기도하며... 살롬.

thechoi82@yahoo.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Fax: (718)886-0074 (대표)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점 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 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모두가 예민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큰 갈등이 생깁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갈등'의 어원이 "왼쪽으로 감아 자라나는 침과 오른쪽으로 감아 자라나는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설킨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아새국어사전은 '갈등'을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욕구가 충돌하는 상

태'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갈등'이란 서로의 견해나 의견의 차이로 얽히고 설킨 채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불화입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갈등을 겪나요? 자기 주장이 강할 때 갈등을 겪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심하면 목살해 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킵니다. 이기심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스스로 이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기심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기심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와 남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기심이 발동되면 그때부터는 의리나 우정은 사라집니다. 이기심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주위의 모두가 이기적이 됩니다.

탐욕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손톱이 길면 때가 끼는 것처럼 탐욕이 자라면 내 영혼에 때가 끼입니다.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을 잃습니다. 체면과 사랑과 우정도 모두 잃습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소송합니다. 결국은 돈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영혼이 병듭니다. 하지만 때가 낀 손톱을 깎으면 개운한 것처럼 내 안의 탐욕을 잘라내면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12:18)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갈등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이유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귀하게 여기면 먼저 배려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섬깁니다. 갈등이 생겨도 형제 사랑으로 그 갈등을 해결합니다.

둘째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브람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더 좋은 풀과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사실

아브람이 롯보다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가 나이나 연륜 그리고 지위를 보더라도 롯보다는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롯에게 더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기적인 룻에게 끝까지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능력, 이기심을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면 갈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내가 손해 보는 그 상황에서도 갈등을 중단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목초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관용도 형제 사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먼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자신이 선택한 것만 소유했지만 아브람은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소유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WWJD)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18).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교훈을 하셨습니다.

1)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1-18).

중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델로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방 종교에서 중얼거리는 "주문(呪文)"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다만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을 잘못된 예배 행위로 보는 것은 자기고집입니다.

2)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19-24).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상의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하늘에 쌓아 두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25-34).

하나님은 우리의 의, 식, 주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의, 식, 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33)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1.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신자는 의, 식, 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본문 중에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4, 6, 18).

구제에 대하여 교훈하신 예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4)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신 예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6)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하여 교훈하신 예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1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그릇 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외식을 가장 미워하십니다(마23:). 그런데 성도들 누구에게나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교제를 가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경건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신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둔하면, 경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사람들의 평가에만 민감하게 생각하면, 흐르는 시냇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과 같이 그 심령이

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는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무 상도 주실 것이 없고, 그런 신앙 생활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3.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시험(Test)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기를 바라고 계속하고 또 더 힘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라면, 하나님은 그런 신자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절대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원의 소리에 많음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과 눈물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이기주의 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성별 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금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저울대가 있고,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평가하시고,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참된 경건 생활의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여 풍요로운 추수의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구제하는 은밀한 장소, 은밀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은밀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금식하는 은밀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걸음로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1-18

트럼프에 맞서 "복고냐 급진이나?"

(2면에서 계속)

둘째는 고령층 유권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은 고령자들에게 트럼프 지지를 철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됐을 법하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2016년 대선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클린턴 막판 지지율과의 대비를 통해 살펴보자. 바이든의 지지율은 클린턴의 막판 지지율보다 약 5%포인트 높

은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 유권자들 지지 덕이다.

65세 이상 고령 유권자들의 바이든 지지율은 힐러리의 그것보다 6%포인트 더 높다. 또한 백인 유권자 지지율은 바이든이 클린턴보다 7%포인트 더 높다. 트럼프의 경우 그의 지지자들 중에 등을 돌린 사람은 유색인종보다 백인 유권자들이 더 많다.

셋째,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서 클린턴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들은 전국적인 득표수가 더 많은 클린턴을 패배로 몰아간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들이 클린턴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던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몇 개 주들의 선거인단이 모두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다.

트럼프에겐 그들의 지지야말로 클린턴의 '전국 득표 우위'라는 파도를 막아 준 방파제였다. 러스트 벨트란 북동부 오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일컫는다.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아,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들 중 8%포인트가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다.

경합주(swing state)에서도 그들의 6%포인트가 트럼프 반대 진영으로 이동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기독교 지지기반도 잃어가고 있다. 복음주의 교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들에서도 그렇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들이 왜 트럼프 진영에 등을 돌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는 딱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

때 민주당 지지 그룹에 속한 그들이 좌파 버니 샌더스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유추하건대 인종적으로 보수적이고 페미니즘에 적대 성향을 지닌 그들이, 2016년 선거 때 다양성의 정치와 권한 분산을 내건 클린턴에게 등을 돌리고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가, 그런 정치를 고집하지 않는 바이든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이코노미스트는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층 다수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라는 점도 트럼프 패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들은 대체로 젊고, 유색인종이 많으며, 대학을

다치지 않았다. 말하자면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충직한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두루 없었다.

그 결과 민주당 텃밭인 동북부와 서부 해안지대 블루 월(Blue Wall, 민주당 색깔인 푸른색으로 이어진 주들) 지역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2016년 대선 때 클린턴이 지는 바람에 전체 판세를 넘겨주게 만든 지역에서, 바이든은 지금 확고한 리드를 견지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가 확고한 애리조나, 조지아, 텍사스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13%에 대한 대책

지난 주 달라스에서 미래목회자 연구모임이 있었다. 달라스에서 20년 세미한 목회에서 사역한 후, 한국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최병락 목사의 코로나 이후의 목회적 현상에 대한 발제와 토론의 시간들이 있었다.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비교하면서 적절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눈에 띄는 연구 자료가 있었다.

온라인예배가 많이 정착이 되었지만 코로나시기를 지나면서 예전에 교회를 출석하던 이들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은 비율이 예전에 비해 13%가 되었다는 부분이다. 최병락 목사의 주요한 논점도 13%에 대한 대책의 문제였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는데 주목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최 목사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60% 가까이 현장예배를 다시 회복하였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쉽지 않은 전후과정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었다. 그가 전한 몇 가지 한국교회의 현상을 전달해본다면 교회가 처음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긴장감 가운데 온라인

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최병락 목사의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취할 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참 안전한 곳이며, 이곳이 피할 곳을 강조해야 하고, 이를 강조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안전하게 이끌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교회와 예배는 회복의 통로

교회가 먼저 앞서서 호들갑을 떨게 될 때 성도들은 급격한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진리는 변함이 없고, 교회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가정과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하여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임에 불과함을 강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이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을 지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인 일곱가지 제언

코로나는 결국 지나갈 것이다. 백신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그때, 주님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숙제검사를 하실 것이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불현듯 찾아온 휴가 같은 침의 시간으로 생각하기에 상황은 심각하다.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토론하고 논의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은 지혜이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비하면 유익함이 있을 것 같다.

1. 나팔을 세게 불어라.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은 양떼이며, 목사는 목자장이신 주님께 부름 받은 목자들이다. 목자는 양들의 귀에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진리의 나팔을 세게 불어야 한다. 양떼는 목자의 음성에서 귀를 기울이며 그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복음의 나팔을 불며, '교회로 나아오라, 교회에

과거의 설교들도 잘 분류하고 정리해본다면 1차 목상과 요약을 넘어서서 더 깊은 목상의 작업과 원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소망을 설교하라.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소망의 설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망과 꿈과 비전있는 삶이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 귀로 듣는 내용에 따라 삶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란 중에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은혜를,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본다.

4. 교회를 기대하게 하라

코로나로 인해 방목, 집콕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들이 교회를 궁금해 하고 보고 싶은 곳으로 여겨지도록 조금의 변화라도 추구할 것을 권한다. 한마디로, 교회 보수공사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카펫공사, 놀이판 개보수 작업, 야외외판, 계시판 바꾸거나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궁금해 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줄 때나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떤 목회자는 기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십자가를 갖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기도할 때 담임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 혹은 성직자라고 하는데 이 칭호도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LA에서 신학생 드림

A: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아세례나 치유를 위한 기도 때 아이나 사람에게 십자가를 갖는 문제가 첫 질문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적인 면에서 단순했고 내용면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 폼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배에 세속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예배가 점점 화려해지고 복잡해지며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에 성호를 갖고 분향하는 등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었고 사제가 성만찬 할 때도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주장했기에 그것을 받아먹을 때 성찬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쾰렌클리는 성경중심의 원칙주의자로 성경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칼톨릭의 잔재 청산을 밀어 붙였습니다. 그

성호 갖기 잘못, 당회장은 회의 때 명칭, 모든 직분은 성직

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모두 거부했고 "성경이 정확히 하라고 명하지 않았으면 우리 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카톨릭의 전통적 상징을 가차 없이 떼어내고 불태우고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제들과 수녀들이 결혼했습니다.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 역시 성직자들이 카톨릭의 신부들과 비슷한 화려한 예배를 입는 것에 반대했고 세례를 줄때 성호를 갖는 것이나 무릎을 꿇고 성찬 받는 것을 다 카톨릭의 잔재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갖는 것은 카톨릭의 잔재라 볼 수 있고 개혁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이라 기도 때 칭하는 문제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예배순서를 실은 주보나 계시판에도 당회장이라 쓰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에서나 보는 현상입니다. 당회장은 영어로 Moderator라 부르는데 토론회나 회의의 사회자 혹은 중재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회를 주관하는 때에만 당회장이라 부릅니다. "당회 의장"이란 뜻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담임목사를 당회장이라 부르는 것은 바른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담임목사라고 칭하면 됩니다. 무지와 불안을 감추려고 권위 있는 척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화려한 가운데 비성경적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을 성직자로 칭하는 호칭 역시 옳지 않습니다. 개혁과 신학에서는 모든 성도의 직업은 다 거룩한 성직이며 교회의 모든 직분 역시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성직이요 성직자에 해당합니다. 정암 박운선 박사의 개혁주의교의학을 보면 "목사에 게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라는 칭호도 반대하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 등 모든 직원은 동등한 것으로 직분의 동등성(Parity of ministry)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역상 동등 교리는 중세교회의 계급적 사제주의로 말미암은 교권월포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자들의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동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에게 고집과 독재와 권리남용의 폐단이 생길 뿐 아니라 시기와 적대심이 성행하여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라는 달렌(Dellen)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다양한 사역의 방법을 통해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사역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실제 일하는 교회, 이런 시기에 교회건축까지 준비하며 일하는 것을 본다. 기타 예를 들면, 동일한 새벽기도회라도 '어른 여름성경학교'로 바꾸어 성경공부도 해보고, 영상 가족찬양축제, 영상부흥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집중도를 높이며 과제를 주어 시상하는 방법, 구역별로 교회방

문 기도제목 적어붙이기 행사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코로나는 결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기위한 목적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주의 군사로 시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멈추어 있지 않고 일해야 한다. 그리하여 코지 준비하며 일하는 것을 본다. 기타 예를 들면, 동일한 새벽기도회라도 '어른 여름성경학교'로 바꾸어 성경공부도 해보고, 영상 가족찬양축제, 영상부흥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집중도를 높이며 과제를 주어 시상하는 방법, 구역별로 교회방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다가온 미래와 교회(2)

- 회복, 부흥, 권능

예배 앞으로 모였다고 한다. 교회에 가는 것처럼 외출양복으로 옷을 준비하고 현금예물을 정성되게 준비해 드렸는데, 갈수록 달라지더라는 것이다. 복장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조금 더 지나니 목회자의 설교가 길어지면 자세도 편안하게 영화 관람하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런 지루한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들은 전체 예배시간을 1시간 이내로 축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정한 시간에 예배할 필요 없이 언제라도 들으면 된다는 생각에 예배의 모습들이 흐트러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게다가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들은 주일에 양수리나 청평으로 놀러 다니면서 '아 행복해요, 자유의 세상'이라는 글귀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코로나 초기 '온라인예배'를 선도했던 교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면 온라인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은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잃었다고 한다. 온라인예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며 가정예배를 실시했던 교회가 이제는 방역을 하고 '교회로 와서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자'고 하면, '왜요? 여기서도 예배드릴 수 있

그래서 참 성도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에 실패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

예배는 정수기와 같다. 온갖 삶의 복잡하고 분주한 문제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게 하신다. 어떤 여성분이 칠순 잔치를 하는데, 자녀들 넷을 앞에 두고 한마디 인사말을 한다. 자신은 30대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 넷을 잘 키웠는데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인사 말처럼 회고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이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고 했다 한다. 그곳에서 남편은 1시간동안 자기 손을 꼭 잡아주더라는 것이다. 그때 그 한 시간이 자녀 넷을 키우며 40년을 버티고 견디게 해준 힘이었던 고백이다.

물리적으로 1시간과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영적인 세계이며, 영적 존재인 인간이 경험하는 신비라고 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손에 우리가 터치되는 것이다. 주일 한 번의 예배가 한주간의 삶을 바꾸며, 새벽 미명에 드리는 하루의 첫 시간의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배를 세상의 다른 오락과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평생에 몇 번 주일

서 만나자, 교회가 안전하다. 교회에서 함께 주의 영광을 보자. 교회는 주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그렇게 힘 있고 담대하게 외칠 때, 양들을 두려움 속에 울다가도 따라올 것이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나팔을 불어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괜찮다. 나팔을 불어도 따라올지, 아니면 제 갈 길로 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 한 것 한 가지는 목자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양들이 따라올 가능성조차 전무해진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주께 결과를 맡기고, 힘차게 교회로 오라고, 예배드리자고 나팔을 불어보자.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처해질 것이다

2. 설교에 깊이를 더하라.

평소, 심방사역과 행사들로 인해 설교준비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피곤한 모습으로 강단에 설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멈추어진 때를 맞이하였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욱 깊이 새벽 전에 나와 많이 기도하고, 낮 시간에는 목상하며, 저녁에도 그 말씀을 잘 다듬으면서 새벽시간부터 수요일, 금요일까지 저녁 설교, 부흥회를 준비하듯 그렇게 준비하며 시간과 정성을 쏟을 때, 분명히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본다. 그렇게 준비한 설교는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본다. 특별히

계획해본다면 좋을 것 같다.

5. 교회 영상을 점검하라.

필자에게 설교는 교회 와서 듣는 것이지, 영상으로 보고 듣는 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고 늘 생각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이 이것을 강제하고 있기에 시도해보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었다.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부족함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손동작이 많았던가?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 시선을 일직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등등.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목회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결국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함이 될 것이다.

6. 교회로 모이게 하라.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한다. 모이니까 뭔가를 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난다. 때 아닌 부흥을 맛보는 부서가 있다. 청년부이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입학식이 취소되고, 기숙사 생활이 되지 못하면서, 멀리 갔던 자녀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 청년부의 때 아닌 모임 열기가 생겼다. 너무 가까이 모이는 것이 위험한 면이 있지만, 잘 양육하면 한명 한명의 청년 아이들을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이다

7. 계속 일해야 한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사하리아(SAHARIA)

인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하리아인들은 마드야 프라데쉬(Madhya Pradesh) 지역에 산다. 그들은 또한 오리싸의 남쪽에 있는 간잡의 언덕, 안드라 프라데쉬, 비하, 탐밀 나두, 서 벵갈, 그리고 아삼의 평야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오스트로-아시아인 언어군의 문다어를 사용한다.



지 않고 있다. 1864년에서 1866년 사이에 언덕 지역에 있던 부족민들이 영국군에 의해 통제를 받았었는데, 그때 부족의 족장들을 박해하거나 본국으로 데리고 갔다. 영국인들이 세금을 걷기 시작했을 때 사하리아인들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나운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언덕에 사는 사하리아인들은 최근에야 인도 정부에 알려졌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자기들 언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하리아인들은 글을 모른다.

삶의 모습

언덕에 사는 사하리아인들은 다시 5개의 조그마한 부족으로 나뉜다. 자티, 아시, 무리, 킨달, 그리고 콤비이다. 이런 구분은 주로 그들의 직업에 의해 이뤄졌다. 자티는 농사를 짓고 아시는 베를 짜다. 무리는 금속을 다듬고 킨달은 바구니를 만든다. 그리고 콤비는 그릇 등을 만든다. 이런 조그마한 부족들은 씨족보다는 영역중심의 17개의 영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다른 지역의 사하리아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제한이 없으며 대부분 대가족을 이루며 산다. 사하리아인들은 언덕에 화전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인도의 임업부와 큰 마찰을 빚어왔다. 그들의 주요 수확물은 조롱박, 기장, 사탕수수, 쌀이다.

20세기 초 많은 사하리아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해 차 농장이나 길을 닦는 노동자로 일했으며 그곳에 남아서 농부가 됐다. 최고의 특별한 직업은 바로 사만이다. 사만은 신앙적인 리더로서, 마술로 병을 고치고 영혼들과 교류하며 여러 행사들을 주관한다. 세습되는 지위도 있는데 바로 마을의 지도자와 부지도자, 피레(장례식에서 시체를 태우는 사람) 그리고 마을의 성직자다. 부족민들의 생각과 여러 사건들이 그 부족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인이다. 사하리아 마을에는 퐁퐁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브린다라 불리는 아버지 계통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몇몇 집들은 가까운 친척관계로 한 대지에서 같이 살기도 한다. 각 가정간의 의사소통은 벽을 사이에 두고 행해진다.

각 집들은 풀로 지붕을 만들어 올렸고, 붉은 진흙을 돌과 섞어 지었다. 가을 동안에는 인적이 드물어지는데, 이는 야생 동물로부터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넓게 흩어져 있는 baby houses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사하리아인들은 대부분의 동물들을 다 먹어 줄 안다. 그들의 식사는 채소나 고기로 장식된 물 같은 죽이다. 야자로 만든 과일주와 그들의 일반적인 음료수이며 대부분의 음식들을 삶아서 준비한다. 필요한 물품들은 매우 평야와 언덕이 만나는 지점에 열리는 시장에서 구입한다. 그들은 숲에서 채취한 것들과 가장 등을 팔아 옷이나, 도끼, 농을 갈기 위한 연장들, 소금, 향신료, 보석과 제사 때 사용할 소를 산다.

사하리아인들은 자신의 전통적인 부족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나 또한 힌두에 대해 알고 있어 그것을 자신의 동질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글을 쓰고 읽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쓰고 읽는 것을 사만의 영과 관계 지어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병과 죽음들은 모두 죽음의 영과 관련돼 있다고 믿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사하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는 없다. 대부분이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라디오 등을 통해서 복음과 예수 회화를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사하리아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선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앙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으로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등 4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활용해 미국 의원들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4건의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이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아진다. 또 각 추가 비용의 25%를 지불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수천만명의 실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조치를 통해 재무부에 연소득 10만 달러미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토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급여세 유예조치를) 연장하고 (급여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조치에도 서명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조치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00만명을 넘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500만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전체 확진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지 16일 만이다.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499만4276명)으로도 미국의 누적 환자는 500만명에 육박했다. 존스홉킨스대는 이날 현재 사망자가 16만23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선 누적 사망자가 1만명을 넘었다.

예수 변화산 확실히 증명 1300년전 교회 발견

이스라엘 관광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수의 변화산(변모산)으로 알려진 타보르산(성경명 다불산) 근처에서 1300년 된 교회 유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적이 발견된 곳은 타보르산 근처 크파르 카마 마을로, 현장에서는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교회 터가 발견됐다. 이번 발견은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IAA)이 킨네렛학술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다. 타보르산은 해발 588m 높이로 갈릴리 호수 서쪽 18km 부근에

있다.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 누리트 페이그 박사에 따르면 유적은 12x36m 크기의 고대 교회로, 본당 입구 앞의 넓은 홀과 뜰, 중앙 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회는 당시 대부분 교회에 한 개만 있었던 앵크스(교회 동쪽 끝 반원형 부분)로 기도를 위한 공간)가 세 개나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모자이크는 교회 중앙부 본당과 통로에서 포장된 바닥 일부가 발견됐으며,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며 파랑 검정 빨강의 꽃 모양이다. 이른바 성물을 담은 돌로 된 성배함도 발견됐다고 이스라엘 관광청은 전했다.

발굴팀에 따르면 교회와 인접한 곳에서는 방울 일부가 추가로 발굴됐고, 지반 침투 레이더 검사 결과 아직 미발굴된 추가적인 방울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구원들은 이 건물이 수도원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킨네렛학술대 모티 아비얌 교수는 "이 마을에서 1960년대 초에 발굴됐던 더 작은 교회 유적(두 개의 예배당으로 6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은 마을 교회였을 것이며, 이번에 발견된 교회는 마을 외곽에 있는 수도원 일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후구 서울장신대(고고학) 교수는 "해당 교회 터는 8세기 비잔틴 시대의 교회나 수도원으로 보인다"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의 변화산이 다불산이라는 전승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성서고고학계에서는 변화산 위치에 대한 논쟁이 진행돼왔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2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기록한다.

고고학자들은 해당 구절의 '높은 산'에 대해 타보르산이나 북쪽의 헤르몬산일 수 있다고 추정해왔다. 8세기 시절 교회가 타보르산 부근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교회가 그 산이 변화산일 거라는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미, 전세계 여행금지 경고 해제

6일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했다.



한국 전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금지 경고로 조정해 발표했다. 당초 대구지역은 4단계인 여행금지였는데 전세계에 대한 여행금지 권고와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3단계로 하향조정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긴밀한 조율 속에 지난 3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 국민에 부과한 전세계 해외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별로 여행경보를 안내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미국 시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적 유행병의 특성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때 조심하기를 계속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이날 국무부 여행경보 사이트에서 3단계인 여행 경고로 조정돼 공지됐다.

미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금지, 여행금지 순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2월 29일 대구

에 한해 여행경보를 4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하고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경고를 유지했다.

그러다 미국이 전세계에 대해 4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를 발령했고, 이날 해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구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3단계로 조정된 셈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금지 권고가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여행금지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와 러시아, 이란 등 약 30개국이 4단계인 여행금지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중국도 이날 오후 현재 국무부 사이트에 여행금지로 공지돼 있다.

통신은 또 국무부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와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3단계인 여행경고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방역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의 경우 2단계인 강화된 주의다.

밀레니얼 미래는 쪽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은 연령층은 20-30대 밀레니얼 세대로 드러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파고에 허덕이며 힘겹게 사회생활을 시작



한 이들의 삶은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몰고 간 것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1981년~1996년 출생)를 경제적으로 더욱 뒤처지게 했다.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5월 데이터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실업률은 12.5%로 X세대(1965-1980년 출생),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 세대보다 높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앞선 세대가 같은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 재산이 훨씬 적고, 이마저도 4분의 1은 자산보다 빚이 많다. 지난 2-5월 밀레니얼 세대 실업자는 48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세대(unluckiest generation)' '가장 힘든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는 밀레니얼 세대의 삶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힘겨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데 애를 먹었고, 학자금 대출 등 갚아야 할 빚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몰아쳤고, 이들은 기성세대처럼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됐다. 밀레니얼 세대가 위세대에 비해 금전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WSJ이 예로 든 30대 청년 두 명의 삶은 밀레니얼 세대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재클린 히메네스(34)는 2008년 경기침체 속에 졸업했다. 눈을 낮췄지만 약국 사무 보조원 자리를 얻는 데 실패했고, 우여곡절 끝에 신부 전용 미용실에서 웨딩드레스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이런 경험을 살려 백화점 판매 사원으로 일하며 매니저로 승진했다.

그러나 사정이 나아질만하자 돌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그는 결국 코로나19로 실직한 수백만 명의 밀레니얼 대열에 합류했다. 경영 위기에 직면한 백화점은 그가 있던 지점을 포함해 일부 지점을 영구적으로 폐쇄해 버렸다. 히메네스는 "마침내 거의 어른이라고 느껴지는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일어났다"며 "어딘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다가도 다시 타격을 받는다. 내 부모님이 누렸던 걸 가질 기회가 나에게 있을까"라고 쓸쓸해했다.

케이트린 로블레스(35) 역시 채무를 갚기 위해 투잡(일자리 2개)을 뛰는 밀레니얼이다. 그는 2007년 세이크리드허드대를 졸업한 뒤 모교에서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했다. 6만7000달러

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친구 두 명과 사는 집의 월세 650달러를 내기에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당분간만이라며 시작한 체인 마사지숍 안내 일을 9년간 붙들고 있는 이유다.

그는 매주 70시간을 일하며 두 직장 모두에서 승진했지만, 매년 7만-8만 달러의 빚을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40세가 되면 집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온 그의 삶은 지난 3월 마사지숍이 문을 닫으면서 엉망진창이 됐다. 로블레스는 "평생 이런 식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WSJ은 통상 평범하다고 인식됐던 취업, 경제적 독립,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 같은 일들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밀레니얼들이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Barack Obama 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제시 로드스타인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신호"라며 "사람들이 발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폭발사고가 레바논 정치 바꾸나...

레바논에서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패와 금융 위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참아 온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은 8일 5000여명의 시위대가 이날 수도 베이루트 도심의 순교자광장 등에 모여 지난 4일 베이루트항 폭발참사를 야기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폭발 피해자들을 위해 복수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헤즈볼라는 테러리스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사퇴 아니면 교수형" "혁명의 수도 베이루트" 등이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행정부, 재무부, 에너지부, 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레바논 은행연합회 사무소를 급습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성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베이루트 시내엔 전쟁터같은 모습이였다"면서 "공중에 돌고 막대기가 날아다니고 최루가스 연기가 구름처럼 깔렸다"고 전했다.

이번 폭발 참사로 운영하던 커피숍과 호텔을 잃고 한쪽 팔이 부러진 오마 제이르는 "폭발참사가 터지자마자 부러졌다"면서 "폭발 사고가 변화를 가져오기에 부족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느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순교자 광장에서 시위 중이던 10대 청소년은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 정부에 (변화의) 기회를 줬다"면서 "이제 선택지에 평화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가스 고무탄을 쏘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레바논 적십자 등은 총출동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시위대 및 경찰 172명이 부상을 입어 5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하산 디야브 총리는 시위가 과격해지자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10일 의회 선거를 조기에 치르자고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디야브 총리는 구조개혁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개월간 한시적으로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디야브 총리의 조기 총선 제안에 대해 "지난 4일의 폭발사고가 제기능을 상실한 레바논의 정치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신호"라고 풀이했다.

디야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지난 1월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아 출범했다. 현재 헤즈볼라와 그 동맹이 전체 128석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레바논의 기독교계 정당 카타이브당 소속 의원 3명을 포함해 5명의 의원들은 폭발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3. 이완균(1900-?)

이완균(李完均)은 1900년 4월 7일에 서울 혜화동 15번지의 91에서 이희창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수하동공립보통학교와 사립 오성학교와 한성 모감수스를 졸업한 그는 1921년에 연희전문학교 이과에 입학하여 1928년에 본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장로교인이었다.

이완균은 미국 유학차 1929년 7월 24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프레지던트 피어스'에 승선하여 미국 북가주 상항에 도착했다. 그는 상항에 도착했지만 배에서 거의 1주간 있다가 7월 31일에 상륙했으나 유학 액뎌를 할 셈이다.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 김 탁이 상항으로 와서 그를 마중했고, 상항을 거쳐 스타튼에 도착한 그는 김 탁 목사의 주택에 이종석과 함께 거주하면서 스타튼 피서픽 대학에 입학했다.

하였고, 30명이 출석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성인이나 유아 중 한 사람도 세례를 받지 않았으며, 1년간 헌금 총액은 360원이었다. 리틀리 한인감리교회(달라노 한인감리교회와 태프트 한인감리교회 포함)의 경우 75명이 등록하였는데 50명이 출석하였



이완균(1928년)
연세대학교 소장

1929년 유학차 도미,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2년 시무 가주관립대학(버클리주립대) 졸업 1933년 귀국후 석사학위 취득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30년 4월 18일 오전 10시에 상항 한인감리교회에서 미국 남감리교 한인남감리교회 지방회 연합대회가 개최되었다. 데비스 목사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석원 목사를 서기로 지정한 후 한국에서 방문한 양주삼 목사가 '그리스도를 들라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인도한 후 회부에 들어갔다. 이날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계사회의 천거로 이완균을 1년간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신임 전도사로 파송했다. 당시 본 교회 목사는 김 탁이였고 전도사로 임성택과 김필권이 있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스타튼 한인감리교회는 80명이 등록하였고 30명이 출석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성인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유아 3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1년간의 헌금 총액은 600달러였다. 상항 한인감리교회는 84명이 등록하였고, 이 중 45명이 출석하였으며, 성인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유아 4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1년간 헌금 총액은 805원이었다.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는 사도 한인감리교회를 포함하여 63명이 등록

하며 유아 한 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1년간 헌금액은 966원이었다.

그해 4월 17일에 상항에 도착한 양주삼 목사와 그의 부인이 상항에 이어 스타튼을 방문하였으니 이완균의 활동이 바빠졌을 것으로 본다. 그들은 리틀리, 나성, 달라노, 뉴욕, 시카고 등을 3개월간 방문하였고, 그해 7월 19일에 상항에서 출발하여 귀국하였는데 신한민보 9월 11일자에서 그들은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고 폐를 단단히 시켰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그치지 않는 중에 미안함도 없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다음 달인 5월 23일 밤 12시경에 스타튼에 다년 거류하며 상업에 종사한 김승길이 고향에게 칼로 복부를 찌러 중상한 가운데 입원 치료 중이었고, 그달 26일 하오 1시 30분에 상항에서 장인환 의사 장례식이 있었으니 공부하던 이완균이 이들을 위한 발걸음이 바빴으리라.

그해 9월 20일 오전 9시에 상항 시내 부쉬 스트리트에 있는 미국인 남감리교회에서 미국남감리교 연합회가 있었다. 김 탁 목사와 김필권 전도사

가 참석하였고, 이완균은 참석하지 못했다. 하오 2시 30분에 다시 모인 연합회에서 스타튼은 '오클랜드 사도 스타튼 구역'으로 재조정되었고 임정구 목사가 본 구역목사가 되었다. 김 탁 목사는 '리틀리, 달라노, 태프트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달 24일에 김병철이 별세했고, 나흘 후인 26일에는 박영제가 득남하여 희비가 엇갈리는 9월이었다. 다음달 10월에는 한지홍이 한국하는 가운데 아들 한상호의 심란한 마음은 이완균의 목회였다.

1931년의 첫 행사는 삼일절 기념식이었다. 3월 1일 저녁 8시경에 시내 한인 예배당에서 일제히 모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해 6월 14일 하오 7시30분에 스타튼 한인교회에서 김 탁 목사가 사회하여 다수 동포가 모여 졸업생 축하회가 있었다. 재미있는 순서를 진행하였고, 여럿이 준비한 아이스크림으로 여름날에 열기가 가득한 흥분을 시원하게 하면서 여름을 나누었다. 이날 졸업생은 그해 5월에 피서픽 대학에서 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완균, 모데스토 주니어대학 졸업생 허은 그리고 와싱턴스학교 졸업생인 김필권의 장녀 김옥자 등 세 명이었다. 그달 21일 저녁 7시에 예배당에서 스타튼 국어학교 방학식이 있었다. 본교 교장 김필권의 사회로 방학식에는 일반 학생들이 배운 바 학예

서 논의했다. 유년회 회장 박원리암씨의 사회로 어린 미간에 격정 빛을 띄우며 적은 주먹을 휘두르며 밤 깊도록 재만동포 구제문제로 토의하더니 아침내 저희 8명이 오랫동안 과거 사먹는 대신 품꾼이 모아두었던 회비 중에서 그 절반인 5달러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그 광경은 참으로 지필로 기록하기 어려우리만치 아름다웠다. 이날 교회가 5원을 기부하였고, 이완균은 50원을 기부했으며, 이날 총 33원 50원이 모였다.

1932년의 첫 행사는 삼일절 기념식이었다. 그해 3월 1일 저녁에 국민회 지방회 회장이자 본 교회 전도사인 김필권의 사회로 스타튼 한인감리교회에서 있었다. 개회 후 애국가 1절과 2절을 부른 후 김 탁 목사가 기도하고, 김필권이 취지설명을 한 후 국기경례식이 있었다. 변영로의 선언서 낭독, 찬양대의 독립선언가 찬양, 순국열사 추도사, 찬양대의 삼일가 찬양, 박영제의 독립운동사, 찬양대의 고려 신천아 찬양, 김 탁의 '우리의 앞길' 연설, 수의 연설, 삼일절 헌납 그리고 애국가 3, 4절을 부른 후 만세삼창으로 폐회했다. 그해 김승제가 노환으로 가주 주립양로원 라구나혼다 홈에서 4월 27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수중에 한 푼도 없었다고 하여 노동 이민자의 슬픔을 감상하였는데 다음 달 2일에 박양대의 장녀 15세의 이디가 불행하게도 돌아오

있는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교역자로서 활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해 12월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에서 성탄절이 있었을 때 이완균은 성경을 봉독했다. 잉케트린이 음악을 한 후 일동이 '세계에 기쁜 날'을 찬미하고 노신태가 기도한 후 이완균이 마태복음 1장 2절을 낭독하였다. 이후 헌금과 광고로 이어졌다. 예배를 드린 후 이어진 1부와 2부에서 성탄행사가 있었다.

1933년 3월 1일에 독립선언 제14회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의 국기를 교체한 단상에서 회장 김은해의 사회로 기념식과 다과회가 있어 밤이 깊도록 혁명적 사상을 충만히 새물게 했다. 이날 이완균은 25전을 기부했다. 신한민보는 모본할 만한 삼일성금이라고 치하했다.

이완균은 1933년 5월에 버클리대학을 졸업했다. 그해 졸업생을 위하여 그해 6월 11일에 나성 흥사단소와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북가주유학생총회 서부대회가 졸업식 축하식이 있었다. 이에 대학졸업생은 그를 포함하여 차상달, 주중남, 김안드류, 김 강, 권일중, 박필원, 박T.C., 송흥국 등 9명이었고, 중학교 졸업생은 15명이었다. 당시 대회장은 문장옥이었고 위원은 김세형과 주중남이었다.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부인전도회가 1933년 8월에 내지 3남 이재민을 위한 구제금을 모금할 때 이완균도 50전을 기부했다. 이들의 기부와 상항 한인감리교회의 기부금을 합한 35달러를 서울 동아일보사로 보내졌다.

귀국

그 후 이완균은 가주관립대학(버클리주립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1933년 여름방학 때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해 가을에 그는 물리학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는데 가을이 짙은 11월 30일에 상항에서 아사마 마루로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가 귀국하기 전 신한민보 기자에게 "이민국에서 하루바삐 출국하라고 재촉하나 선비가 부족하여 염려하던 차에 리틀리에 계신 김형순씨가 선비를 도와주셨음으로 무사히 배를 타게 된 바 김 씨의 후의를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미국서 공부하는 동안에 스타튼, 빼글리, 상항, 리틀리 등지에 계신 여러분의 후위를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남겼다. 그런데 1934년 5월에 이완균이 버클리주립대학원에서 졸업했다고 한다. 아마 그가 한국에 가서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1939년에 이완균은 일본 젠 라쿠에 있는 젠 라쿠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임했다고 한다.

damien.sohn@gmail.com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를 시험하며 재미있는 노래와 감상담이 있었고, 우등 학생들에게 시상식을 거행하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나누었다.

그해 7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남가주 나성에 있는 백인 교회에서 미국남감리교 한인남감리교회 지방회 연합대회가 열렸다. 보고에 따르면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등록교인이 62명이었다. 이날 이완균은 김필권과 함께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2년 차로 파송되었다. 그해 9월 5일 상오 9시에 상항 백인 남감리교회 풀나이드 기념예배당에서 감독 무어 박사의 사회로 미국남감리교 산하 동양인선교회 대회가 있었다. 한인보고회는 따로 모였는데 보고에 따르면 나성에 교회를 조직한 후 50여 명의 교인이 증가하였고, 작년에 비하여 공황에도 불구하고 별로 재정이 감소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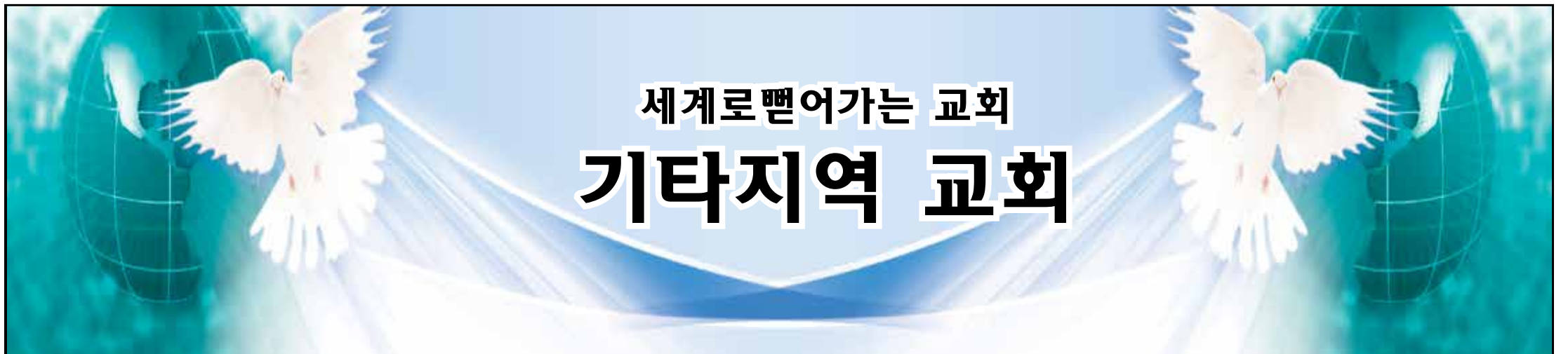
그해 12월 12일 저녁에 스타튼 한인교회에서 본 교회 유년회의 아동들이 중심이 되어 재만동포 구제금에 관해

지 못할 길을 떠나갔으니 한인촌에는 눈물겨웠다.

그해 가을에 버클리대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이완균의 목회는 1930년 4월부터 1932년 여름까지 약 2년간이었다.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이완균은 1932년 11월에 버클리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932년 가을학기에 본 대학에 입학한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학교 인근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영, 위,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생: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yebark R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성경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7)



응은 설교자가 가진 자질이나 개성보다 설교자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가슴에 다가오도록 설교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설교의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성령의 나타남은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된다.

8장 적용의 다양성(적용의 종류)

적용의 세 번째 원리는 개별적인 청중에 대한 적용으로써 디모데후서 3장 16-17절과 로마서 15장 4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적용에는 이론적인 것(mental)과 실제적인 것(practical)이 있다.

1)이론적인 적용: 이것은 지성과 관계된 것으로 '바른 교훈(doctrine)'과 '책망(reproof)'을 포함한다.

가)바른 교훈이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성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교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 더 큰 가치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리의 적용이다. 이런 경교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딤후5:20).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실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태만을 바꾸어 놓으신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으로 불타서 주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신다.

퍼킨스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본문에서 이끌어 낸 메시지에 청중의 형태(7가지)와 적용의 방식(4가지)을 조합하며 모두 28가지의 서로 다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보게 된다. 우리가 청교도 설교 들에서 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바로 이런 적용의 이론을 토대로 실제로 실천된 것들이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런 식

전달에 있어 비록 설교원고를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설교 전달을 할 때에는 설교원고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억술을 사용하여 설교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비 영적인 활동과 관련시키기 때문이고, 인위적인 기억술로 마음과 총명이 둔해지기 때문이며,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논리적 사고가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설교를 준비할 때 다양한 증거, 교리의 적용들, 적용의 예증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순서를 마음에 조심스럽게 새긴다면-사고의 공리적, 삼단 논법적, 조직적 방법 등으로-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암기할 경우에 우리가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직책감

질문) 잠시 만에 두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외적으로 마침내 내 짝을 찾은 듯 행복한 척 하나 마음 한구석은 사방에 죄스런 마음에 짓눌립니다. 자다가 소스라쳐 깨어날 때면 내 온 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합니다. 죄 값을 받기 위해 고스란히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용서 구하고 회개의 기도하며 자신도 용서해야

답) 한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상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혼을 당한 경우라면 '좀 더 현명하게 행동했다면...; 이왕에 참고 견디던 거 더 참았더라면 자녀들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혼을 주도했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나로 인해 가정이 깨어졌다'라며 자책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 실수로, 혹은 악한 것의 시험에 빠져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은 일이 생겼을 경우 '결코 내 죄는 용서 받을 수 없어, 가족들도 하나님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며 자책을 넘어 자학하게 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시32:1-6)라고 말씀에 있듯이 뼈가 쇠하여질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을 괴롭힐 수 있으며 행동이 부정적이 되어 다른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으로부터 치료 혹은 해결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피해준 대상에게 사과는 물론 대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우선 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기회를 봐서 카드나 문자를 통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연 그렇게 간단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배배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해해줄 수도 있을 것인 만큼 깨어진 관계를 잇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간단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할 때, 다윗은 바로 납작 엎드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애원하며 부르짖었는데 그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의 깊은 죄의 모습에 마음을 찢으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인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51:11).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용서가 되었습니다. 시몬즈(David Seamands)는 "상처 난 감정의 치유"란 책을 통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를 가지며, 죄로부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용서함과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가 있을 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건설적이고 생기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절대적 의인이신 예수에 비취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차는 체험을 한다면 한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9면으로 계속)

이론적 적용(바른 교훈, 책망)과 실제적 적용(지침, 교정) 필요 설교 암기 말고 전달 시 언어와 내용에서 자신의 지혜 감춰야

두어야 한다.

나)책망은 성경의 교훈을 사용하여 잘못된 생각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마음에 믿음과 종교의 올바른 관점을 수용하는 것만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소,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상태가 요구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어떤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2)실제적인 적용: 이것은 생활양식 및 행동과 관계있는 것으로 '지침(instruction)'과 '교정'(correction)을 포함한다.

가)지침은 가정, 국가 그리고 교회에서 잘 살기 위한 교리의 적용이다. 우리의 능력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한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보다 경외함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나)교정은 불경건과 불의의

으로 다룰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교리를 상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의 경험과 교회의 상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그렇게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선택함으로써 말씀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적용들에 대해 압도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면한다.

9장 기억술의 사용(원고를 암기해서 설교하지 말라)

그는 먼저 당대에 유행했던 기억술로 설교를 암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설교를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설교원고를 그대로 낭독하는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설교원고를 그대로 읽게 되면 설교자와 청중의 교감이 떨어진다. 설교

긴장해서 설교의 부분을 놓친다면 회중은 더 혼란한 상태로 치달게 될 것이며, 거기다가 이런 연습은 언어와 행동과 성령이 주시는 자유로운 영적 감정의 흐름을 가로 막기 때문이다.

10장 말씀 선포(설교 전달)

10장에서는 중요한 전달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감추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설교자는 설교 전달 시에 언어와 내용에서 자신의 지혜를 감추어야 한다. 이는 곧 청중의 신앙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맡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교 전달에서 왜 인간의 지혜를 감추어야 하는 것일까?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백이지 인간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의 반

헬하여 문법은 삼가야 한다. 또한 세속적이거나 우매한 말들도 삼가야 한다.

설교자의 말은 거룩한 인격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만큼 설교자의 인격이 중요하다. 설교자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경험 그리고 실천에서 비롯된다. 설교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며, 설교에 대한 내적인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충만해야 한다.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감정도 내적으로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퍼킨스는 은혜로운 설교자가 가지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자질을 가르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younsu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몽양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야: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전 05:30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l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침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46-04 162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청년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안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진안예배: 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baysidechurch.org/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12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

장궤했던 전염병이 즉시 그쳤...

로 지쳐서 취리히에서 180km...

로 지쳐서 취리히에서 180km...

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제 부...

그는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

역대하 7:12-14에 보면 “혹...

예레미야 5:1을 보면 한사람...

예레미야 5:1을 보면 한사람...

비상작정 새벽기도회”로 역대...

모든 성도들이 매일 현장에...

예레미야 5:1을 보면 한사람...

예레미야 5:1을 보면 한사람...

꾼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도...

다윗이 하루 7만명의 이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songkpk@hotmail.com

예수님은 '감염과 ...

(3면에서 계속)

우리가 서로 인사한다는 사...

행복한 인사는 우리가 그리...

고 피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이런 인사말들에 마스크를...

의 인사는 여전히 모든 교회...

얼마 전 우리 교회는 10주...

결론으로, 당신은 즉시 돌아...

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

결국 우리의 모임은 궁극적...

나라는 격리, 온라인 생중계...

벤후3:13).

그러니 곧 안전하다는 것을...

TikTok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음악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

틱톡 사용자들은 거대한 데...

대부분의 틱톡 이용자가 가...

이 페이지에는 인기를 끌만...

이와 함께 즐기는 콘텐츠...

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틱톡과 도우인...

틱톡이 괄목할 만한 성장은...

그 내용이 모호하긴 하지만...

2019년 4월 인도에서는 “...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 정보보호위원회(An...

물론 여기에는 무역을 둘러...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댓...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따...

하지만 페이스북 등 미국...



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인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보면...

업들과 달리 틱톡은 전례...

디즈니 임원총인인 틱톡의...

고려해보면, 굉장히 의미...

하지만 단순히 어떤 데이...

중국은 2017년 국가보안법...

검색 가능성 또는 이 앱이...

틱톡은 많은 젊은이들이...

콘텐츠 선별 방식과 관련...

순위에서 배제하게끔 운영...

지난해 가디언은 틱톡이...

워싱턴포스트도 중국 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틱톡은 25세 이하...

틱톡 이용자들이 잠정적...

한부모 가정사역

(8면으로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도...

귀를 이기기 위해 ‘나는...

성경인물 중 베드로가 가...

에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

의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에...

회를 통해 새롭게 단단히...

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kdrministry@gmail.com

교계 게시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예배 컨퍼런스 2020'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예배컨퍼런스2020'이 '숨과 쉼(Pneuma & Sabbath)'이란 주제로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 주일에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실시간 줌으로 진행되며 주일저녁 서부시간 5시, 동부시간 저녁 8시, 한국시간은 월요일 아침 9시에 열린다. 구글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자에 한해서 링크 이메일을 보내준다. 강사는 주제 강연에 류영철 목사, 설교에 양성구 목사(온라인설교: 효과적인 사례 둘러보기), 회중음악은 헬렌 차-표와 김승남 목사(온라인예배: 회중찬양을 통해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 성례전과 예술은 김남중 목사와 한영은 전도사(코비드 상황에서 온라인 성례전과 예배 예술의 적용과 실제), 예배실연은 다 함께 참여한다.

▲문의: young.han@cst.edu(한영은 준비위원장), njkim@cst.edu(김남중 교수)

담임목사 청빙

은혜의 빛 장로교회(KPCA)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장로회 정규신학대학원(M.DIV)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후 사역 및 경력을 포함 5년 이상 되고 이중언어가 가능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서, 자기소개서(본인/배우자), 목회세부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서, 목사안수 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최근 설교 동영상 3회분 및 추천서가 필요하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까지. 제출 서류는 lgkpcsearch-pastor@gmail.com이나 우편메일(68 Morello Ave. Martinez, CA 94553)로 하면 된다.

▲문의: 정규범 장로(510-910-3535) 유경민 집사(925-822-7551)

교역자 청빙

주님세운교회(KPCA, 담임 박성규 목사)가 풀타임 사역자(행정 및 미디어)를 찾고 있다. 신실하게 교회사역을 감당하며 미디어에 열정이 있는 자로 정규신학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고 미국 체류에 걸림사유가 없으면 된다. 이력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자기소개서, 목회자 2인 추천서가 필요하고 마감은 8월 14일까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jscoffice01@gmail.com

▲문의: (310)325-4020, 482-0574

반주자 청빙

뉴욕그레잇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가 주일 2부 예배 성가대와 금요일저녁에 사역할 반주자를 찾고 있다.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 교회 및 성가대 반주경력자이며 피아노 전공자.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 lilyum@hotmail.com

중고 스마트폰 도네이션

아이티 고아사역을 하고 있는 더코너(대표 조항석 목사)가 현지에서 보낼 중고 스마트폰을 도네이션 받고 있다. 쓸 만한 데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환영한다.

▲문의: thecornerkorea@gmail.com

뉴저지교협, 현장예배 물품 지원

세정제 온도계 등 선착순 70교회...580달러 상당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가 코로나19 사태 중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회원교회를 위해 예배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순세정제 60병 △순세정티슈 100봉지 △비접촉 자동 온도계 1품 △비접촉 자동 온도계용 삼각대 1개. 선착순 70교회를 지원하며 교협 회비를 납부한 교회를 우선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교협이메일(njkoreanchurches@gmail.com)로 하며 신청마감은 8월 22일(토)까지.

뉴저지교협은 이 물품은 어려운 교회 돕기 일환으로 프로모션 가격 350달러(원가 580달러)이며 추후 물품이 필요한 교회는 교포서점(201-944-8740)에 문의하기 바란다

(유원정 기자)

AG 한국총회 2020년 정기총회 재 연기

2021년 4월 19일(월)-22일(목) 뉴욕 프라미스교회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총회장 김명욱 목사) 정기총회가 2021년 4월로 연기됐다.

2020년 정기총회는 4월 20일 뉴욕프라미스교회(담임 허인행 목사)에서 열리기로 예정됐었지만 코로나19로 8월 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연기돼 결국 2020년에는

총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재 연기된 일정은 2021년 4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로 장소는 뉴욕 프라미스교회로 동일하며 김명욱 목사가 총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PCA 서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 연기

목사고시 응시자 4명 임사/고시부가 개회대로 진행

미국장로교(PCA) 서남노회(노회장 한성운 목사)는 9월 15일에 열기로 한 제75회 정기노회 개최를 코비드19로 인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본 노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정기노회 개최에 대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노회원 80% 이상이 정기노회를 연기하고 추후 임시노회 개최를 선호해 노회 연기를 결정했다.

한편 4명의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임사부와 고시부가 개회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준호 기자)

“말씀과 찬송 기도로 능력의 통로 되자”

남가주 교계연합 기도대성회, 설교 지용수 목사

남가주 교계연합 기도대성회가 지난 5일 오전 11시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열렸다.

찬양과 경배 후 사무총장 심진구 목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미주지부)의 인도로 진석호 목사(LA전도대학 학장)가 대표기도를, 소프라노 지경 교수가 특송을 한 후 지용수 목사(한국 양곡교회 담임, 예장통합 중경총회장)가 '능력의 통로'(엡3:14-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지용수 목사는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을 말하고 있다"라며 "은 교회가



남가주교계연합 기도 대성회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길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용수 목사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인간 상호간에는 수평적 관계를 이뤄야 하는 연

합 원리를 교회에 적용시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논하고 있다. 바울은 삼위이신 하나님이 하나이듯, 각각의 다른 은

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통일과 연합을 추구해야 함을 밝히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무장해 능력의 통로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요한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총회회 중경총회장)가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나라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하고, 지용덕 박사(연세아카데미 원장)가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담임)에게 연세아카데미 이사장취임 축하패를 증정한 후 한기형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현장예배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갓스픽갈보리채플 주일예배를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abc7 뉴스 취재장면)

남가주 미국 교회 실내예배 강행 논란

갓스픽 갈보리채플,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

갓스픽 갈보리채플(담임 랍 맥코이 목사)과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담임 존 맥아더 목사) 등 남가주 일부 교회들이 지난 주일인 9월 7일 주정부의 현장예배 명령을 무시한 채 예배를 실내예배로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와 ABC7, NBC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벤주라 카운티 뉴버리 파크에 위치한 갓스픽 갈보리채플에서는 실내예배를 일시 금지하는 판사 명령에 저항해 실내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교회 앞에서는 예배 참석자들보다 많은 100-15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 교회가 우리 모두를 위해 빠뜨린다

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 일부 밀치거나 비명이 들리기도 했지만 심각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체포된 주민도 없었다.

또한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서도 주명령을 위반하고 실내 예배를 개최했다. 본 교회는 심지어 예배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어서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예배 참석자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예배가 '필수적'이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국에 있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호소문 발표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있는 교계단체 관계자들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호소문 발표

미주, 중남미, 캐나다 한인 교계단체 공동

미주 교계단체가 한국 국회에서 준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유해성을 알리고, 미주 지역 4000여 교회와 150만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알리고자 발표하게 됐다.

미주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중남미지역(대표 김상돈 목사), 캐나다지역(대표 임현수 목사)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호소문 발표는 한국 국회에 지난달 말 정의당이 발의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유사한 법을 미국사회에서 경험한 미주 한인교회와 한인 기독교단체들이 한국 정치권과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전하는 경종이다.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경험한 프랑스,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은 이러한 법으로 교회, 가정, 학교는 물론 전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다. 보수계 입장을 견지한 대부

분 미주 한인교계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의도와 달리 동성애 보호법 혹은 동성애 반대 차별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교계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진영의 논리로 이 법안을 대하는 것을 우려하며 미주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미주 한인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정의당 발의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자마(JAMA) 대표이며,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인 강순영 목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법"이라 지적하며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이 호소문 발표를 위해서 미기총 총무 샘신 목사 성시화운동본부 상임 본부장 이성우 목사, 총무 김시은 목사,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등이 호소문 초안작성 등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문의: 강태광 목사(323-578-7933), 이성우 목사(213-675-6493)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터 유분자 이사장, UCI MIND 자문위원 위촉

소망소사이어터 유분자 이사장이 치매전문 연구기관인 UCI Institute for Memory Impairments and Neurological Disorders(이하 UCI MIND)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UCI MIND는 UCI에서 치매와 뇌질환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의대 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UCI MIND의 특별 초청을 받은 약 40명의 지역사회 리더, 비즈니스 리더들로 구성돼 UCI MIND의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군이자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커뮤니티 아웃리치, 후원행사지원, 마케팅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기금모금행사 등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오고 있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UCI MIND 자문위원회의 특별 초대를 받아 2020년 7월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유분자 이사장은 "특별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인 지역사회 내에 UCI MIND를 알리고, 소망소사이어터를 통해 한인 시니어들

이 UCI MIND의 최첨단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며 "UCI MIND가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터)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터 이사장



전국 최초 한국계 미국인 정신건강 전문가 서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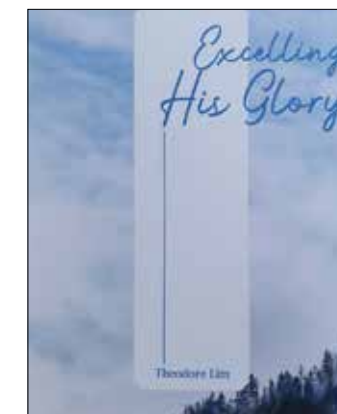
Mustard Seed Generation이 주최하는 전국 최초 한국계 미국인 정신건강 전문가 대상 서밋이 1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미국 동부시간 기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JoonandDrSam, KAWA, KCSNY, KFAMLA, Lifecare

Services 등 한국계 미국인 정신건강 단체 협력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의 개최사는 스티븐 연(배우 겸 영화제작자, '위킹 데드', '옥자', '버닝', '미나리' 작품)씨가 하게 된다.

서밋 등록은 natlsummit.eventbrite.com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www.mustardseedgeneration.org/kr/2020-national-summit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지석 목사 영문칼럼집 출간

Excelling His Glory... 신앙적 교훈 담아

임지석 목사(나성세계로교회 담임)의 영문 칼럼집 Excelling His Glory가 CLC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됐다. 본서는 임 목사의 두 번째 영문 칼럼이자 아홉 번째 책이며 270여 페이지 분량의 정성된 영문 칼럼 120여 편을 선보이고 있다.

본 서적은 다양한 소재와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생각들을 담백하게 써내려가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간결하게 들려주고 있다.

외국인이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기 좋은 책으

로 구입을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 (213)219-922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나성세계로교회)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4)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6-1)청교도 신앙 회복과 대각성(Great Revival) 부흥을 위한 “오직 성령”(Solus Spiritus Sanctus: Holy Spirit Alone)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우리가 절대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聖靈)의 권능(權能)을 받은 자만 복음의 증인(證人)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宣言)하셨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슨(D. M. Lloyd Jones)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기사들은 부흥(復興)의 기사입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을 때 즉시 사도행전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언제나 부흥 가운데 있던 신약성경의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띠기 마련입니다. 신약성경 시기는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오순절(五旬節)의 위대한 부여주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영적인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참으로 유유부단(優柔不斷)하고 나약한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icon)이었던 열두 제자들이 역사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五旬節, Pentecost) 성령강림을 직접 체험(행2:1-4)했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유월절, 즉, 예수님의 부활(復活)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Jerusalem)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행2:41),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행4:4),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행5:14),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자무리도 복종하니라”(행6:7)라는 엄청난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스가라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즉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여, “남 여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행 2:17,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태되었고,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메시아로 탄생하셨다(마1:20).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체휼(體恤, empathy)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히4:15). 예수님께서, 세례(30세) 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마3:16).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



성령”(요14:26, 16:7)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12절 약속의 말씀, 즉, “내가 하던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탁월(卓越)한 식견(識見)으로 성령(Holy Spirit)의 역사를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있어 능력의 원천(源泉)임을 정확하게 정리했

청교도: 칼빈 5대 교리 따르며 하나님 절대주권 온전히 실천하려해 영국 종교개혁 주역이며 대표적 청교도 거목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

18)라고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했다. 이와 같이 말세 말인 지금, 복음전파와 왕성한 대각성(Great Revival) 부흥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부여하실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부터 그의 공생애 및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왜! 우리가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의 진정한 완성과 승리를 위하여, 진술한 다섯 가지 솔라(Sola) 외에 반드시 “오직 성령(Solus Spiritus Sanctus)”이 추가되어야 하는가? 를 더 확실히 증명한다.

다(마4:1). 광야 40일 금식기도와 세 차례 걸친 사탄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치신 다음, 성령의 권능(눅4:14)과 함께 본격적인 3년의 공생애(公生)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단 조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조건을 제시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내(성자) 이름으로 보낼

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사61:1,2)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용했고,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착한 일과 치유, 그리고 귀신을 축출할 수 있었다’라고 성령과 함께 동역(動力) 하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聖靈)과 능력(能力)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 즉 믿는 자의 표적(表跡)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전사(戰士), 용사(勇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공생애 기간 동안 기도(祈禱)의 모본(模本)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던 것이다.

1)새벽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1:35), 2)철야기도,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눅6:2), 3)전심전력,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니라”(눅22:44).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 금요일 새벽 겻새마네

段), 시스템(system)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Holy Spirit Alone)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고, 오직 성령과 동행할 때만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과의 영적 전쟁(영6:12-13)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담대히 승리(勝利)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스코틀랜드(Scotland),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God's absolute sovereignty)을 온전히 실천(實踐)하고자 했던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그 청교도 신앙이 절대적 영향을 준, 칼빈(John Calvin)이 성령(聖靈)의 신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의 교황주의(敎皇主義)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루터(Martin Luther)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에 주목을 하였던 반면, 칼빈은 이신칭의에서 머물지 않고 그는 이 칭의(稱義)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이신칭의를 확립(確立)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성령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자였다. 그의 주 저서인 기독교강요(基督教綱要)에 나타난 성경론은 개혁교회 성령론의 기초(基礎)를 확립하는 데 주요한 사상적인 배경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영국의 종교개혁의 주역이요, 대표적 청교도의 거목(巨木)들이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리처드 시브스(Richard Sibbes),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존 오웬(John Owen), 리처드 바스터(Richard Baxter)는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kimjoyh@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회관: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어권 (영스-KDC, 킹덤빌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2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수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새벽: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밀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에밀영양관리회 협동회사 상담사: (월-금) 오찬(아-오)4시~4시30분 사역장: 1. 영성상담 2. 영성상담사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f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영성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중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주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l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예배: 오전 9:45(101방)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q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무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모임: ‘하늘같이 믿어지라’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s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과 양심에 따른 표현 막는 법안”

전국신학대학교수연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신학대학교수연대는 10일 “차별금지법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수연대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수연대는 “이 법은 동성애나 소위 제3의 성이라는 표현 등을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

며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행위”라며 “동성애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근거도 없어진다”며 “이 경우 교회 공동체 역시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연대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고려신학대학원장 신원하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로 포장돼 있지만, 그 핵심 목표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양심에, 다자성애와

같은 것도 이성애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대우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윤리적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연대는 지난달 20일부터 차별금지법 반대 시명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7일 기준 369명의 신학교수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교수연대는 11일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하나님을 위해 한교총과 통합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한교연은 차별금지법 반대 등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으로써 한국교회 보수로서의 선명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로 했다. 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대표회장 이름으로 발표되는 성명서를 각 회원교단에도 보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임원회에서는 회원교단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교단과 단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정리하기로 했다.

보완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기에 해당 법 제정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고기총은 해당 법이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과 유엔에서 해당 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거나 권고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 제정에 반대했다.

고기총은 소속 1200여 교회 교인들과 고양시민들에게 해당 법의 폐해가 담긴 안내지를 배포하고, 법 제정 반대 의사를 담은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부착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달라진 교육환경도 언급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학생들은 인간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이 자라는 경험을 할 수 없게 됐고 소득 격차는 학습 격차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기존 교육체계가 갖고 있던 약한 고리들이 두드러졌을 뿐”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역할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교사는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큐레이터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학습을 기획하고 안내하고 지원하는 게 학습 큐레이터”라며 “나아가 아이들이 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학습터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사는 학생을 위해 부담받았고 학생을 지키는 자다. 기독교사라면 교육, 학교, 수업, 교사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에서 시험을 마칠 때까지 외부 접촉이 금지된다.

총회 고시위원회는 시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출문제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논술 문제는 “차별금지법의 현황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비판과 목회적 입장의 해결 방법을 논하시오”였다. 설교는 구약 오바다 1장 17-21절을 본문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에 관해 서술하는 문제였는데 성경 지참이 금지돼 난이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객관적인 성경 과목엔 ‘역대상, 역대하는 몇 장까지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은 창

“자유민주주의,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 열자”

한교총, 광복 75주년 기념 성명 발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15일 광복 75주년을 앞둔 한국사회에 자유민주주의의 길과 남북의 평화 공존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고 했다.

한교총은 10일 ‘광복 75주년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모든 지도자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화합을 통해 다음세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본다”면서 “남북의 평화 공존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치권엔 분단을 영속하는 대결 정책을 내려놓고 남북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할 것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 평화 공존과 종전선언 등의 조치를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행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제 치하 국권 침탈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력을 배양하고, 미래지향적 외교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도 재차 표명했다. 한교총 측은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로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면서 “평등의 가치를 오토한 소위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영생하지 못한다” 양심선언 촉구

신천지피해자연대, 교주 규탄 성명…기출자녀 12명 명단 공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구속 중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영생하지 못한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신천지에 빠져 기출한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전피연은 6일 경기도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규탄 및 기출자녀 귀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피연 신간식 대표는 이 교주에게 띄우는 편지 형

식의 성명서에서 “당신은 이제 사법 정의에 따라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공의를 위해 당신의 양심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나는 영생할 수 없다. 나는 약속의 목자가 아니다”라고 양심선언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의 망상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는 20만명의 인질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신천지 불법행위 단죄, 특별법 제정”

전피연, 이용선 의원 방문 피해호소 적극대처 요청

신천지 피해자들과 전피연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가운데)에게 신천지에게 받은 피해를 호소하며 이단·사이버 문제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피해자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신천지로부터 받은 피해를 호소하고 이단·사이버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을 자세히 검토해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점검해볼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신천지의 불법 행위를 단죄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겠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간식) 관계자들과 신

천지 피해자 14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찾았다. 이날 만남은 전피연이 지난달 30일 ‘신천지·동방방개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의원에게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요청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각각 신천지로부터 받은 피해를 이 의원에게 설명했다. 신천지 문제를 단순히 종교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종교·사이버종교·사이버종교피해예방법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모(52)씨는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몇 년째 연락 두절 상태”라며 “신천지 문제는 종교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아이들 소식을 모른 채 사는 피해 부모들은 자식을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신천지 피해 부모들이 길거리로 나와 피해를 호소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

“뉴노멀 시대 비대면 선교 새 길 열자”

국민일보·복음의전함 캠페인 협약…전국 20개 권역 복음광고 진행

국민일보와 복음의전함은 10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협약하고 뉴노멀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선교의 새길을 열어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복음광고·온라인 양육·지역교회 인도에 이어지는 비대면 전도활동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고정민 복음의전함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어떤 형태든 복음 전파는 멈출 수 없다”며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에 담대하게 국민일보와 결연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변재은 국민일보 사장은 “복음의전함이 그동안 보여준 복음광고 사역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어려운 시대 상황을 딛고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랑 폭설로 코로나19 이겼으면”

원로목회자재단·평신도총연 ‘사랑의 원로목회자 여름산타’ 행사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신신목 목사)과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교 장로) 5일 오전 서울 종로5가에서 ‘제6회 사랑의 원로목회자 여름산타’ 행사를 개최했다.

산타 복장을 한 원로목회자 50

여명은 출근길 시민에게 마스크를 비롯 사랑의 선물(생수 및 다과, 전도지, 소책자 등)을 골고루 나눠 줬다.

마스크는 인근 양로원 등을 포함 5만 5000장이 전달됐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해당 법 제정은 인류의 생존을 허무는 생물학적 자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반헌법적, 반사회적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법 제정을 주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오직 성소수자의 ‘지향성’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 국민과 갈등을 만들지 말고, 본인의 사명인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와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 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평안을 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피연은 이 교주가 직접 신천지 간부들에게 특별 지시사항을 내려 기출 자녀와 가족의 귀가를 지시할 것도 촉구했다.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가정불화를 겪고 있거나 기출해 연락이 안 된다는 피해 부모들이 전피연 측을 통해 제출한 12명의 자녀 명단도 공개했다. 피해 부모들은 이 교주에게 “부모와 가족이 원하는 대로 신천지와의 관계를 끊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시하라”면서 “신천지 이탈자들에게 발행하는 영구 제명서를 지참시켜 가정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고 말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청년들도 직접 겪은 신천지 집단의 폐해를 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신천지 탈퇴자들의 사회 적응을 도와 프로그램과 종교실명제 등을 담은 유사종교피해방지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간식 대표는 “신천지에 빠져 기출한 자녀만 2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들 자녀에 대한 영구제명서를 써서 내보내줄 것을, 의원실 이름으로 신천지에 요청하면 좋겠다. 유사종교·사이버종교피해예방법 등 관련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께서 호소한 부분은 현행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겠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안 된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신천지의 불법 행위를 단죄할 여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은 전국 각지에서 전파될 복음광고를 통해 복음의 비대면 접점을 확대하고, IT선교 플랫폼과 결합한 비대면 소통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선교모델이다.

본격적인 캠페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전국 20개 권역을 중심으로 버스나 택시 각 1000여대에 복음광고가 게재된다. 복음광고를 접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관련 키워드(이즈 오케이 등)를 검색하면 복음 제시 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 이후 전문적으로 훈련된 e-코치가 10주간 신앙적으로 양육한 뒤 거주 지역 내 건강관 교회로 안내한다.

시장 신신목 목사는 “장마와 폭염에 지친 이들에게 잠시나마 사랑이라는 폭설로 코로나19까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단체 대화식 이주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 장로는 “이제 여름이 되면 종로에 여름 산타가 등장해 선물을 나눠 준다는 소문이 퍼져 예수사랑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기도회 연다

한교연, 광복75주년 건국72주년 감사예배 함께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7일 군포 제일교회에서 제9-4차 임원회(사진)를 열고 광복75주년 건국72주년 감사예배와 차별금지법 반대기도회를 오는 12일 군포제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임원회는 광복 75주년 건국72주년을 기념해 1부는 기도회 2부 감사예배, 3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로 진행하되 한교연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국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등 5-6개 단체가 연합해 대회를 주관하기로 했다. 방

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 동원 없이 각 기관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광화문 8.15집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회원교단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지난 임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을 위한 대화를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한기총이 정상화될 경우 통합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한국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해당 법의 폐해 안내지 배포 등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고기총·회장 오성재 목사) 소속 목회자들이 1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면서 “해당 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기총은 해당 법이 동성애와 성 소수자를 우대해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법이란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에서 헌법 위에도 균립할 수 있는 초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고기총은 “기독교의 근본정신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기도 이미 제정된 법을

비대면 수업… “오히려 아이들 위해 헌신해야 할 때”

좋은교사운동, 온라인 기독교사대회

“아이들과 단절을 느꼈고 수업은 수업 같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 구름산초등학교 교사 최경희씨는 기독교사연합 좋은교사운동이 3-5일 사흘간 온라인으로 개최한 ‘특별한 기독교사대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올 상반기를 이렇게 기억했다.

기독교사대회 마지막 날인 5일 최씨는 “강의와 소모임을 통해 기독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했고 모든 기독교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예레미야처럼 기독교사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시대 문제와 교육 회복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

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1998년부터 2년마다 기독교사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열려던 ‘2020기독교사대회’를 대신해 ‘특별한 기독교사대회’로 열었다. 사흘간 200여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설교와 강의를 듣고 소모임을 가졌다.

3-4일 이틀간 장동민 백석대 교수가 ‘여전히, 함께’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5일에는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가 주제강연에 나섰다. 김 대표는 기독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다.

그는 “기독교사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앞장섰다.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정방문을 하며 아이, 학부모와 신뢰를 유지했고 저학년 학생들에게 학습 꾸러미를 보냈다”면서 “이 같은 노하우를 동료교사와도 공유했다”고 전했다.

예정통합 코로나로 연기 ‘목사고시’ 실시

전국 4개 권역서 1300여명 응시 방역 만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차례 연기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목사고시가 6일 전국 4개 권역에서 분산 실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연기와 전국 권역별 분산 개최 모두 초유의 일이다.

예정통합 총회 고시위원회는 매년 봄 실시하던 목사고시를 올해는 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300여명 수험생이 응시하는데 소속 노회에 따라 서울 강남·강북권은 장로회신학대에서, 중부권은 대전신대, 서부권은 한

일장신대, 동부권은 영남신대에서 시험을 치른다. 고사장 분산은 수험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한 교육책이다.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체온 측정에서 37.5도 이상이나온다 귀가해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30분 경건회로 시작하며 오전엔 서술형 시험인 설교와 논술 과목을 치른다. 오후엔 객관식으로 성경, 교회사, 헌법 과목을 각각 33문항씩 풀어야 한다. 이후 면접을 끝으로 시험이 마무리된다. 출제위원 및 고시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



“우울증과 영적 치유” (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2. 사울 왕 - 악령에 의해 고통 받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난 후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괴롭히는 악령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

“여호와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 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

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

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삼상16:14-23).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도 사울은 주님께 돌아가 치유함을 구하는 대신 단기책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였고, 그의 연주는 사울을 괴롭히는

영으로부터 위안을 주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악령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많은 이들이 육체적 문제가 없음에도 감정적, 영적인 아픔을 겪는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가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고통을 주는 영에게 저항하기 위한 영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아가서 이 성경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

세요. 기꺼운 마음으로 당신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3. 요나 -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하다

요나는 순종의 교훈을 어려움 통해 배웠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점이였다. 하나님은 그를 삼킬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울며 도움을 청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사오며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욘2:1-10).

우리는 자연 재해나 우리의 악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신앙적 행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불순종과 믿음이 없는 삶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생긴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다면, 즉각 회개해야 한다. 가끔은 우리가 힘든 때 우리를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영적 힘 갖기 위해 예수님과 지속적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 고통은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함일 수도... 불순종은 회개해야

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필요가 있다. 예배 참석과 성경공부, 기도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사람들에게 배움이 매우 중요하다.

기도: “주님, 제가 단기책을 얻기 위해 사람을 찾았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제 자신을 잘 알아서 회개하고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영적 감옥에 넣으려는 악한 영에게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욘1:1-4).

만약 요나가 폭풍이 일어난 시점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했다면, 그의 삶은 순탄했을 것이고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회개하는 대신 요나는 다른 뱃사공에게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 죽으려 했던 것이다. 요나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심지어 바다 속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기도: “주 예수님, 제가 요나처럼 물고기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저의 불신앙적인 삶과 불순종으로 주님을 거역한 어떤 죄가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제 가족과 다른 사람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주세요.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저의 죄를 씻어 깨끗케 해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광복절 75주년 성명서

[편집자주]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조일래 목사)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7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권 회복을 위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운동, 광복의 시간을 지나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상처가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을 힘차게 달려온 위대한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 민족의 긍지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로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광복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며, 수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교회로 하여금 민족의 등불이 되어 독립, 자주, 국권 회복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믿음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와 순교자들이 나라와 민족, 복음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의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기에 우리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화합을 통해 다음 세대에 자유와 희망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2. 광복절은 75년 전 남북 모두에게 준 자유이기에 평화와 통일 길을 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코로나19이후 전 세계가 바라보는 국가의 위상도 상당히 올라갔으나 아직도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남북문제의 해결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야 하는 숙원이다. 우리는 남북이 평화공존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다음 세대에는 통일된 나라가 되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광복절은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에 평등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었다.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은 것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평등의 가치를 소위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잘못된 시도를 규탄한다. 객관적인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범으로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 조항의 제정은 반 생물학적, 반 헌법적, 반사회적 발상이다. 정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 국민과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와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지혜와 근성이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음을 확신한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길이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오늘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일치와 연합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 시대 앞에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세기총)

선교 펴기

멕시코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문안드립니다. 이곳 멕시코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족하나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은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힘 있는 기도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교체

저희는 올해 성경묵상 사역자들의 수련회를 1월(아르헨티나)과 2월(멕시코) 두 차례 진행하고 2월 중순에 에스라 성경학교 2020년 1학기 개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의 수업 후 3월 17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멕시코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고 저희 사역의 모든 스케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메인 사역인 에스라 성경학교와 성경묵상 세미나는 온라인 모드로 전환되어 Zoom과 Youtube를 통해 진행되었고, 매달 진행하던 월간 세미나도 역시 Youtube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한 학기를 은혜가운데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2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코로나19 상황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곳 멕시코는 8월 1일 기준 매일 6000-9000명의 확진자와 500-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거의 정상적으로 오픈하고 활동하고 있기에 코로나 감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에스라 성경학교에 다니던 학생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소천하기도 하고,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의 일가족 모두 감염이 되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8월10일 에스라성경학교 2학기 개강과 후반기 사역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라 성경학교 2학기 수업과 모든 세미나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사역과 해외 사역은 일시적으로 모두 취소가 되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였기에, 이제는 교회로 초청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각 교회나 부서 모임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설비조차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은 막연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출판하는 성경묵상집은 계속 만들고 있지만 센터모임을 하지 못하기에 원활한 배부가 불가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배달되고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성도님들은 이 작은 큐티책 구입조차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현장예배들이 사라지고, 신학교들도 대면강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이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 교회도 이 문제로 많이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억되시는 대로 저희 멕시코 성경묵상 사역과 에스라 성경학교, 멕시코의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멕시코에서 박지만/한여정 선교사 드림

기도 제목
- 멕시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 장점과 단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점이라면 거리나 시간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원근각처에서 동영상을 보게 되어 생각지도 못한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면 강의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지금

-8월10일 에스라 성경학교 2학기 온라인 개강을 위해(멕시코의 인터넷 상황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모든 상황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 박지만/한여정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meditacionbiblica.com
YouTube 채널: MBMEXICO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도끼로 때으르게 하고(왕하6:1-7)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성도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지생도들이 자원해서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했습니다. 도끼를 빌려다가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벨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사용된 것은 반드시 다시 찾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화 아람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왕하6:8-10)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통쾌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히는 아람군대들이 도단에 진을 치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포위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람군을 사마리아까지 포로로 잡았다가 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왕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도와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수 아람왕의 마음이 변이하야(왕하6:11-12)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람군대의 힘과 작전에 따라 이스라엘이 망해야 하는데 겨우로 지금 아람왕이 변노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막아야 하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니까 아람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

해야 할 것은 한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나라 전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가갈 때 항상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목 두려워하지 말라(왕하6:14-16)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기 원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군대가 엘리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 엘리사 한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단 성읍을 에워 씩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어서 아무 염려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

다. 그러나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환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군대를 보고 큰 두려움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금 기도하여 가로되(왕하6:17-19)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기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적군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용기를 갖게 한 다음 곧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암몬족속을 물리칠

수 있지만 사환이 보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뜨게 한 후에 또 기도합니다. 아람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 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되 하나님 한분만 경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큼니다. 할렐루야!

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왕하6:20-23)

본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은 늘 넉넉한 여유를 갖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사마리아까지 와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아람군대를 칠 기회가 왔으니 다 쳐버리자고 합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칼과 활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것인데 뭘 그렇게 당장 죽이려 하나며 오히려 더 많이 베풀어서 내

보내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펜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미명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1)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작년 연말부터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패턴을 송두리 채 바꿔놓았다. 마스크를 써야했고, 손을 20초 이상 씻는 습관이 생겼으며, 통금이 실시되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학교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문명국이라 자처했던 미국, 조선진국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나라들이 허둥대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이에 벌써 7월말 현재 미국에만 47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5만명 이상 사망자를 기록하였는데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처음 Stay-at-home의 명령이 떨어졌던 지난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우리는 몇달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는커녕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매일 나오고 있다.

예년 지금쯤이면 교회에서는 떠들썩하게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다음

중요시 하는 아날로그 세대인 반면, Z세대들(1997-2012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디지털 세대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면 바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라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7월29일자)는 이들을 COVID 세대(Coronavirus child, Generation C, Coronials), 혹은 자가격리 세대(Quaranteens) 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졸업식 혹은 입학식이 없이 학교를 입학/졸업한 세대이다. 이들은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교육을 받는 세대이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우정을 나누며 대화하지 않고 컴퓨터로 대화하며 지내는 세대이다.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육적인 영역으로 한정해볼 때, 세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저하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보통 여름방학기간에 일시적 하락현상을 보이다가 가을학기가 시작된 후 1-2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는 가을학기 수업 역시 주로 가정에서 비대면으

COVID 세대: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회적 정서적 영적 영역의 발달 저하 테크놀로지 통한 대체교육, 교육기회 형평과 공정성 우려

달부터 시작되는 개학 준비에 들떠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는 이번 가을학기에도 대면수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 5천만명의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교회 역시 한정된 조건에서만 예배와 모임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놀랍거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오늘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 많은 교육자들, 행정가들이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코로나시대의 교회교육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코로나시대의 교회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지금부터 10회에 걸쳐 대안과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세대(COVID Generation)의 특징

사람의 역사는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과 환경에 따라 인식하는 태도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정한 사건은 그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공통적인 인식 체계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X세대(1965-1980년에 태어난 사람들)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긴 세대이지만, 그 뒤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은 개인적인 취향을

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학업성취도의 하락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학생들의 수학이나 읽기 평균성적은 전년도대비 약75% 수준이라고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수업이 10일 부재할 경우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1% 표준편차의 하락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약 2개월의 학교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이미 6%의 표준편차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COVID 19은 총 수업년도의 0.6년의 기간에 해당되는데, 통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기간이 총 7.9년을 감안할 때, 지금의 학생들은 7.3년에 모든 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각 학교마다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불학기의 여러 시행착오들은 현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교회학교는 어떤가? 코로나시대로 교회가 온라인예배로 대체되고 현재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하나 교회학교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연초에 설정한 교회교육 커리큘럼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는가?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4번도 맨해튼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로 편지

니카라과

우한폐렴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간 목회자가정 위로모임

미 동부 2618선교회 유재도, 유영숙 선교사 내외분과 미 서부 Jane Sun Chang 권 사남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교비로 오늘 오전 선교사무실에서 우한폐렴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마사야주 지역 내 목회자 가정을 초청하여 작은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마사야 지역 10가정의 목회자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을 제외한 9가정이 참석해주었습니다.

Jorge Castillo 목사의 인도로 찬송과 기도를 드린 후 Enrique Zamora 목사의 욕 1:18-22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 가정을 위로하였습니다.

제가 계14:13의 말씀을 읽은 후 지난 9번의 마사야 전도 대회를 함께 섬긴 동료 목회자들을 마음에 담아 이 작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한 후에 쌀, 오트밀, 붉은 콩, 설탕, 식용유, 커피, 프림을 담은 박스와 함께 위로금을 또 오영관, 김경희 선교사 가정에서 준비한 위로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일일이 저들의 돌아가는 발걸음



을 전송한 후 아직도 투병 중인 두 가정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후 2020년 8월 3일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1)

<14면에서 계속>

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여름 성경학교 등)의 취소 혹은 재조정 등의 경우 어떻게 아이들의 영적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둘째, COVID 19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사회적, 정서적, 영적 영역의 발달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교실에서의 대면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뿐 아니라 동료간, 교사와 학생간 긍정적인 관계를 높이고, 사회생활의 질서를 배우며,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을 배우는 등, 사회적, 정서적, 민주적 관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다. 코로나사태로 학교 교실에서의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자 미국 교육당국이 제일 중요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의 발달 경

험을 어떻게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느냐 라는 거였다.

트라우마는 사람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건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을 말하는데 트라우마는 특히 학생들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대처기능을 저하시키도록 가능하다. 그러하여 학생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과도한 분노를 야기시키거나 혹은 행동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교육(특히 교회교육)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COVID 19은 교육기회의 형평과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지내기 위해 부모들은 필요 이상의 비용을 차일드케어 를 위해 지불해야만 했다. 실업률은 미국 대공황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주된 이유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통한 대체 교육은 특히 가난한 가정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고 특히 한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9-12개월에 해당되는 학습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자, 홀부모님 등에게 더욱 다가가야 한다. 그들의 자녀를 더욱 돌보고 섬겨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코비드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다음 회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한다.

hle0414@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4.가장 행복한 가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활짝 핀 꽃, 아기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백이면 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일찍이 비스마르크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단어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가정이 지상의 낙원인 동시에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이며, 평화와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와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다가 저녁이 되면 가

의 Headship을 남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여자는 인류 최초의 범법자이기 때문입니다(창3:16). (3)남자는 하나님다. 땅 위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백이면 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일찍이 비스마르크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단어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가정이 지상의 낙원인 동시에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이며, 평화와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와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다가 저녁이 되면 가

내의 부족과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3:21)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격노케 하지 말고, 이해, 위로, 격려, 칭찬으로 용기를 주어야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은 행복한 가정 이루기
부부와 부모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피곤한 인생이 돌아갈 곳은 가정뿐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정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가정이란 내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언제고 나를 반겨 받아주는 공간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가정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꼭 떠나가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1.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가정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엡5:22)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엡5:22,고전11:3).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5:25)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엡5:27). (2)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엡5:25). (3)아내를 사랑함이 곧 자기를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엡5:28,33). (4)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벧전3:7). (5)아내는 영생의 유업(천국)을 함께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벧전3:7). (6)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정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벧전3:7).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양육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은 마음을 기쁘고 편하게 해드리고(잠22:25), 말만의 효도가 아닌 물질로 봉양함이 필요하고, 살 아게시는 동안 효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최선의 효도는 전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팬데믹 시대 ... VBS 어떻게 했나?

남가주든든한교회

주일학교 스텝진

생방송 진행 어려움 있었지만 학교수업 경험 있던 아이들 잘 따라와

팬데믹 시대의 7-8월은 개 교회마다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시기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름성경학교(VBS)와 단기선교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진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VBS를 통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기회가 되고,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는 복음을 접하게 하는 특별한 전도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매년 축제처럼 진행되던 VBS가 현장예배가

불가능함에 따라 취소되거나 다른 형식으로 새롭게 진행되어야 했다. 상황이 가능한 교회에서는 동영상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조차 어려운 교회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2020 여름이 됐다.

본지는 금년에 처음으로 온라인과 ZOOM을 통해 VBS를 진행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목사) 주일학교 스텝들과 인터뷰를 통해 준비상황과 진행상의 어려움, 기대되는 성과 등에 관해 알아봤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철 목사는 “팬데믹으로 기존의 스타일이 아닌 처음 시도하는 방식(온라인)이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다. 성공적인 생방송을 위해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했고 녹화하고 방송하는 일을 처음 경험한 교사들의 심적 부담이 컸다. 교사들의 헌신과 각종 기기, 어린이와 부모들이 하나 돼야 하는 특별한 사역이었다. 더욱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자 방송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은 방송을 위한 데코레이션, 촬영 기기, 소품 준비 등도 어려움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온라인 VBS를 경험한 교사들은 앞으로 교회 주일학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행사와 계획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온라인 방송을 도울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 좀 더 발전된 방송을 어린이들에게 선사해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주일학교 상황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VBS를 진행에 선봉자로 수고한 선생님들은 유스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 전도사와 아론 간사를 꼽았다.

브라이언 전도사는 “선생님들이 각자 맡은 일은 모두가 중요했다. 한 사람이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됐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으려면 기술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리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했으면 쉬웠을 것이지만 라이브로 하는 것이 최고의 도전이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실험과 실패가 있었다.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어린이들과 소통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다”고 소감을 들려줬다.

브라이언 전도사는 이번 VBS를 준비하며 “VBS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의외로 아이들이 잘 참여했고 울동이나 찬양, 말씀듣기, 만들기 등도 너무나 잘 참여하고 따라와 이번의 첫 경험은 참으로 복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VBS를 마친 후 브라이언 전도사는 “이번에 다른 한 교회에서 함께 조인해서 진행했다. VBS가 끝나갈 무렵에는 ‘더 많은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았

을 텐데’하는 아쉬움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를 설명하는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혹은 다른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https://srcla.org/online-vbs/>를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유스그룹 손지혜 선생님은 연극을 전공하며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능을 따라 손 선생님은 스테이지 매니저 포지션을 맡았다. 짜여 있는 큐시트를 만들고 손 선생의 큐를 따라 각

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손 선생은 “아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고 말하며 “각자의 공간에서 춤도 같이 추고, 만들기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아이들이 금방 live streaming이라는 공간에 적응을 하는 것을 보았다.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면서 줌으로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상 VBS프로그램에 대해



오지은전도사가 라이브로 설교하고 있는 모습(위)과 이 마리아 선생님의 스텝 스테이션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좌)

자료 사용에 저작권문제 걸려...온라인방송 도울 인재양성도 주일학교도 온라인으로 지속, 학생과 소통할 행사 계획 필요

카메라가 메인 채널이 되었다. 뉴스 브로드캐스팅과 비슷한 시스템이었다.

손 선생은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리허설을 잘 따라와주고 커뮤니티케이션도 잘 됐기 때문에 VBS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준비과정 중 중이라는 앱을 통해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웠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많은 부분을 라이브로 하고 싶었지만 줌의 한계 때문에 리코딩을 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또한 Sunday school 디렉터가 꼭 라이브로 아이들을 보고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줌이라는 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그 앱의 최대치를 활용해 어떤 부분은 라이브로, 어떤 프로는 리코딩을 해서 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다.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이번 VBS에 처음 동참한 김나연 선생님은 “모든 게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녀가 맡은 일은 테크니컬한 부분이다. VBS 프로그램 중 미리 녹화한 동영상도 있고 실시간으로 카메라 찍은 것들도 있어 그것들을 제때에 바꾸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ZOOM이라고 말한다. YouTube Live는 그냥 틀면 되는데 아이들 얼굴도 보고 대화하고, VBS interactive하게 만들고 싶어서 줌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줌은 영상채팅은 잘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 많은 실험을 해보아야 했다고 말한다. 줌은 StreamLabs 라는 소프트웨어

에 동영상 등을 미리 준비하고 Zoom screen share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방송했다. 행사를 마친 김나연 선생은 “생각보다 어린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쉬움 보다는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년부를 맡고 있는 산드라오 전도사를 만났다. 모든 준비과정이 처음엔 막막했다고 한다. IT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다. 어떻게 해야 여러 채널에서 잘 스트리밍 할 수 있을지 줌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많은 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각 스테이션마다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해야 하기에 힘이 들었다. 카메라 앞에 서서 녹화할 때는 교회보다는 방송국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오 전도사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사용하며 저작권문제도 있어 사용허락을 받는 것과 온라인으로서의 좋은 방법 찾기,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 자료들을 미리 어린이들 집으로 발송했는데 도착하지 않은 문제, 준비하는 선생님들끼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는 것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필요한 많은 장비들도 유스그룹에서 잘 준비해줘서 감사했다. 또 다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면 더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번 VBS를 위해 함께 수고한 스텝이 15명이 넘는다. 선생님들은 집에서 각자 맡은 스테이션들을 미리 동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메인 팀은 교회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진행했다. 다행히도 브라이언 전도사는 디즈니랜드에서 비디오/오디오를 담당했던 엔지니어 덕분에 모든 영상과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론김 유스그룹 디렉터는 온라인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천조꾸

운동이 중요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운동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일과 운동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운동에만 집중해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정비례가 됩니다.

저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이 평소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과욕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기에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몸을 만들 수가 없고, 하루아침에 강인한 체력이 될 수 없는데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의지가 약하다고 포기합니다. 운동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에 게서 배우는 것은 성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후에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달리는 것이 익숙한 생활의 패턴이 되었다고 합니다. 끈기와 인내, 성실함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식사 후 1시간씩 동네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합니다. 운동도 자기와 세운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성실함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새달을 맞이해 새 마음으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조꾸’의 슬로건으로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천조꾸’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의 첫 말을 딴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매사에 욕심을 버리고 천조꾸!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날마다 천조꾸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bible66@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여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펀슨, 메트로북; 침묵: 앤드류 슈사쿠, 흥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독특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